

학 교 공 동 체 를 위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용



학 교 공 동 체 를 위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용

목차

PART 01. 프로그램 개관

여는 글	김형완, (사)인권정책연구소	006
프로그램 이해와 활용	(주)에듀니티	014

PART 02. 함께하는 인권교육의 여섯 가지 접근

하나. 인권의 눈으로 세상 톺아보기	김은희, (사)인권정책연구소	022
둘. 주요 결정례 함께 읽기	김지우, (사)인권정책연구소	030
셋.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	이태숙, 서울덕수초등학교	038
넷. 인권 추천도서 활용 방법	송승훈, 의정부광동고등학교	050
다섯. 인권을 돌아보는 영화수업	차승민, 밀양 밀주초등학교	060
여섯,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세우기	배희은, (주)에듀니티	073


인권교육 교수·학습 참고 자료

• 인권교육 자료실	085
• 인권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086
• 유관기관 및 단체	088
• 인권교육 동영상·영화	090
• 인권교육 참고도서	092
• 인권교육 참고 그림책	095

PART 01



프로그램 개관



1부 프로그램 개관에서는 본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성격, 취지,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교공동체의 인권감수성·인권문해력을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을 이해하여 학교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전문성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이래저래 억울합니다

봉건왕조국가에서 식민지로, 해방 후엔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로 계속된 격변의 와중에 ‘인간의 존엄성’이니, ‘인권’이니, 하는 것들은 언제 한번 우리 곁에서 제대로 숨 쉴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간혹 어느 누가 그 비슷한 얘기라도 할라치면, “배가 부른 모양”이라고 비아냥대기 십상이었습니다. “먹고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무슨 놈의 인권이냐”는 것이었지요. 형편이 이렇다 보니 명색이 ‘인류가 합의한 보편적 가치’라는 인권이, 국가(권력)작용에서는 물론, 사회운용의 준거가 되기는커녕, 모함과 질시, 왜곡에 시도 때도 없이 시달려왔습니다. 급기야 인권 때문에 가정과 사회의 질서와 위계가 무너지고, 인권 때문에 이기적인 권리주장이 난무해서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개탄합니다. 인권 때문에 공무집행이 안 된다고 불멘소리가 나오고, 인권 때문에 교육현장이 혼탁해지고 교권이 무너진다고 장탄식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그나마 2001년 인권 전담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권’이라는 용어만큼은 그 지독한 이념과 진영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동안 민주화, 좌파, 운동권 등의 용어와 비슷한 유통경로를 가졌던 인권이 비로소 보통명사로 통용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누구든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었다가는 관계기관에 진정 당하는 수모를 치러야 하는, 바야흐로 너도나도 인권을 얘기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인권은 여전히 ‘보편적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사회 한 곳에서는 성, 장애, 인종, 출신국가, 나이, 용모,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혐오가 난무합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명제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문구일 뿐, 현실에선 다릅니다. 모든 인간이 존엄한 게 아니라 일부의

인간만 존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대체로 인간은 존엄하지만, 일부의 인간은 존엄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 합당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어야만 딱 그만큼의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마땅히 차별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존엄성이 사치인 인간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인권교육의 부재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인권이 보통명사로 통용되기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내용까지 '사면'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오래된 관습은 아직도 인권을 쉬 인준 authorize 해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심지어 대학에서조차 인권은 교과과정에 편성되지 못한 탓에 인권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할 기회가 없습니다. 용어는 남발하는데, 정작 내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 이는 필연적으로 인권에 대한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오남용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심지어 한 때 한국사회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 가운데도 적지 않은 이들이 가부장적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인권감수성에 관한 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종종 성폭력사건이나 갑질에 연루되곤 하는 것도 아마도 이런 맥락일 것입니다.

오늘날 시민권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부정

뿐만이 아닙니다. 18세기 인류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는 당돌한 문제제기로부터 세습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기회의 평등’을 요체로 하는 새로운 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시민사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시민적 자유는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확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기회의 평등은 입구의 평등만을 가리킬 뿐 결과의 평등까지 담보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시민권의 빛과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시민권은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누구나 차별 없이 ‘노력하고 경쟁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자격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존엄한 삶을 누리려면 누구든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고, 노력은 성과를 낳아야만 하며, 성과를 내려면 경쟁을 해야 하고, 경쟁은 필연적으로 서열화를 동반하며, 이는 결국 존엄에 있어 차별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정당하다는 인식을 보편화시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양극화나 차별, 혐오는 바로 ‘기회의 평등’만을 인권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온 귀결이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는 경쟁에 지친 나머지 누구나 신경증적인 증세를 보입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합니다.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봉쇄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할수록 누적되는 하층민의 우울증과 피해의식은 엉뚱하게도 기득권층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향해 날을 세웁니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약자 공격으로 배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성공 신화를 내면화함으로써 '성공한 자', 또는 기득권층을 자기 동일화하게 되면 그 양상은 더 격렬해지고 맙니다. 양극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존재 양태는 '열등감' 또는 '우월감'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열등감은 추격적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존재 양태이고, 우월감은 승리했으나 경쟁과잉으로 인한 자기 소진의 존재 양태입니다. 강자의 갑질이든 약자의 무력감이든 소외된 삶이긴 매일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를 넘어 보편적 인간애로

인권의 복잡성과 교차성은 인권이 정의 담론에 기반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정의를 넘어 설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상징하듯, 정의는 '자유(공정fairness)의 보호'와 '평등(공평equity)의 증진'으로 실현됩니다. 근대 이후 확립된 시민권 체제는 정치공동체인 국민국가를 소환하여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근대 사법체계는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의 보복과 복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를 대리한 국가가 합당한 징벌을 내림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종종 패권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관철하려는 속성을 가집니다. 무릇 정의 앞에는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십자군전쟁과 양차 세계대전 등 인류가 경험한 거의 모든 비극적 대립과 참화는 정의의 패권쟁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정의실현을 위한 불의와의 싸움은 불가피하고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우리)의 정의'와 '너(저들)의 정의'가 서로 달라 상호대립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도덕감정은 정의 앞에서 추호도 주저함 없이 비타협적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타협이나 양보는 곧 불의로 간주될 뿐입니다. 심지어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파괴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따라서 '악에 대한 정의의 심판과 응징'이 아니라 '결핍, 또는 박탈에 대한 충족Fulfill'으로 전환할 때 인간 존엄성 보장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결합이 정의를 구성하지만, 인권은 그 정의가 보편적 인간애로 향하지 않으면 종종 폭력으로 치닫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인권은 단순히 악함에 대한 '선한 저항'이나, '정의正義의 심판' 또는 '악에 대한 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권선징악勸善懲惡으로 상징되

는 이원론적인 선악구도에 기반한 정의론은 너무나 쉽게 폭력으로 돌변하고 만다는 것이 우리가 겪은 인류사적 경험이자 교훈이기도 합니다.

“착하게 만들 수는 없어도 착하게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문구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입법된 직후 강남 학원가에 나타난 홍보전단 내용의 일부입니다. 인권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달리 인성교육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인성이란 무엇일까요. 대체로 서양의 성격personality, 인격character, 개성individuality 등을 우리는 인성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사회에서 실제 쓰이는 인성의 용례에 걸 맞는 개념이 아닙니다. 개성이나 성격은 그 자체로 존중할 일이지, ‘국가’가 ‘교육’을 통해 ‘진흥’하고 말고 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양의 유교적 전통에선 인성이란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충忠, 효孝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덕목들은 군자의 도리, 즉 지도자의 필수덕목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자고로 지도자라면, 백성을 대할 때 어질고 올바른, 지혜와 믿음으로, 받들어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권력을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맥락에서, 즉 ‘지도자의 인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인성교육은 누구를 향해, 누구에게 강조되고 있습니까. 전도도 이런 전도가 없습니다. 이런 전도로도 모자라 교육현장에선 인권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고 앞서야 한다고 서슴없이 주장합니다. 인성으로 ‘반듯한 인간’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인권교육은 ‘짜가지’ 없는 인간을 양산할뿐이라고 폄훼합니다. 이렇듯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개념부터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의 왜곡과 폄훼, 생활밀착인권과 인성

또 한편에선 ‘생활밀착형 인권’이라는 용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시민생활에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소한 인권의제를 중심으로 정책이나 제도, 규범 등을 기획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밀착인권의 무분별한 남용은 인권이 본질적으로 국가공권력, 나아가 권력관계와 밀접한 인과관계를 맺고 있음을 사상시킵니다. 그래서 인권을 그저 연성화된 생활준칙, 개인의 윤리규범(“착하게 살지”, 또는 “불쌍한 사람 돕지”) 쯤으로 탈색시키고 맙니다. 인권을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오인誤認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생활밀착형 인권’이라는 표현에는, 인권을 오로지 사적 층위로만 잡아넣어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개인

들 간의 이익쟁투를 인권의제로 둔갑시키고 마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는 정작 권리담론으로서의 인권은 사라지고 인권이 그저 책임담론, 의무담론으로 대체, 또는 그것들의 하위담론쯤으로나 자리 잡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인권실현을 위한 활동은 고작해야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이해를 둘러싼 민민갈등쯤으로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인권에서 권력관계가 사상되면, 인권실현의 당사자인 실질적 책무자가 장막 뒤로 숨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야말로 권리들 간의 경합만이 가열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같은 ‘인권 인플레이(?)’를 초래하여 결국 공동체 파괴적인, 혼란의 주범으로 인권이 자리를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이 존중과 배려라는 개인의 덕성이나 품성으로 대체되고 맙니다. 사실 상호존중과 배려의 강조는 권력관계에서 지배자의 언어로 유통됩니다. 예컨대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강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할까요? 또 인권침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인권침해가 없어지고 인권이 실현될까요? 권력관계야말로 인권의 출생지이고 인권교육의 목표는 불합리한 권력관계의 시정과 극복을 통해 모두의 존엄을 실현하고자 하는 역량증진과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2021년 5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협력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탁 연구 용역」의 결과물입니다. 프로그램 기획·자문에는 (사)인권정책연구소가 참여하였으며, (주)에듀니티가 수행사로서 연구 개발을 총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집필·자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은 무엇이며,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성이란 무엇인가, 교육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부터 거칠고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정치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자기결정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궤테의 표현을 빌리면 '인민의 자기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전개된 구체적인 양태를 보면, 그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먼저 몽테스키외의 구상대로 법치주의(국민주권주의에 근거한 권력통제)와 대의제(삼권분립)를 채택하였으나, 이는 결국 인민의 자기통치라기보다는 인민의 대의자에 의한 통치라는 한계를 가집니다.

원래 민주주의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demokratia에서 비롯합니다. demo민과 krato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우리말로 '민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demos는 단순히 다중이나 군중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당대의 정치체제에 따라 주권자의 범주를 달리 하므로 인민, 시민,

국민 등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권자를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을 중심으로 삼은 정치체제에선 인민, 국가권력에 대한 비판적 견제와 감시를 기초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회계약에 의해 주권자로 설정한 정치체제에서는 시민, 시민을 국민국가에 의한 호명으로 바꾼 국민 등이 그것이랄 수 있습니다. 국민은 사회체제의 호명이라기보다는 국가체제의 호명에 국민으로 호명되는 순간, 국가에 대한 시민적 비판성, 저항성이 지워지고 맙니다. 그래서 국민교육이 아니라 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민성을 담보하기 위해 직접 보통선거, 복수정당제, 대의제에 의한 위임통치, 자유주의(능력주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 국민국가의 시민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시민혁명에 의해 확립된 오늘날의 정치체제를 시민민주주의 체제라고 한다면, 시민은 국가 안에서, 국가에 대하여, 주권자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치적으로 확보한 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비판성, 저항성을 잃지 않도록 시민적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오늘날 시민민주주의 체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주권재민(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정체성과 공공성(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선이라는 공화주의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공화주의를 소홀히 하면 포퓰리즘으로 치닫기에 십상이고 반대로 공화주의가 민주주의를 소홀히 하면 독재와 권위주의로 빠질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일차적으로 포퓰리즘과 같은 다중독재를 막고 동시에 독재와 같은 권위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의 시민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공화국의 시민적 역량을 키워서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물론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항구적인 발전과 번영일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어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 이어 기본권의 목록을 먼저 제시하고 그 뒤에 권력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이 우선이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권력 구조, 즉 권력의 분립과 상호 견제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민주공화국의 핵심 사명은 인권보장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소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수단과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목적의 실현을 위해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중심제니, 내각제니, 임기를 몇 년으로 하니, 헌법기관을 무엇으로 둘지 등에 대한 모든 것, 이른바 권력 구조는 결국 인권의 실현을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이 인권의 가치에 기반하여, 동시에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그저 가치지향 없는 정치교육에 불과해지고 맙니다. 민주시민교육이 반드시 인권에 기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존립 목적은 인권의 실현에 있다는 명제는 이미 5백여 년 전 계몽주의자들이 근대 국민국가를 기획하면서 설계한 사회계약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마침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을 보아도 우리 교육의 이념을 홍익인간이라고 정하고 교육의 목적을 민주시민의 양성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은 앞에서 언급하였으니 더 이상 부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홍익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아시다시피 그것은 전인교육을 통해 널리 세상에 이로운 존재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인교육이란, 지덕체를 갖추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지식^智과 건강^體은 궁극적으로 어진 인간^德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유교의 덕이란, 곧 인이며 이는 기독교의 사랑, 성리학에서 말하는 측은지심, 불교의 자비, 마사 누스바움이나 아마르티아 센이 말하는 공감역량,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 공감^{sympathy}과 한치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권에서는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박애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인권실현을 위한 민주주의훈련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이해와 활용

(주)에듀니티

프로그램의 목표

인권교육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인권의 기본적 원칙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정보를 알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인권의 보편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이라는 인권의 특성에 따라 개별권리들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사유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통해 현실에서 인권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안을 파악하고, 고민할 수 있는 '인권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는 인권친화적 시각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학교에서 인권교육 영역별 목표(지식 영역, 가치·태도 영역, 기능 영역)와 구체적인 인권교육 내용체계 구성을 위한 대범주, 중범주, 세부항목이 제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인권교육의 지식 영역 목표로는, 인간 존엄성 존중 및 인권의 의미와 필요성 이해, 인권의 역사 이해, 인권 권리들 이해, 인권 보장 체계 이해, 사회 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권 침해 상황 이해하기 등입니다. 학교 인권교육 가치·태도 영역의 목표로는 자신과 타인의 인권 존중과 인권 옹호 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중, 인권에 대한 공감, 책임 등 인권적 가치의 습득 및 내면화, 폭력 및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인권 감수성과 저항의 태도 등입니다. 또한 학교 인권교육 기능 영역의 목표로는 비판적 사고를 통한 인권 문제 인식, 인권 문제에 대한 민주적 해결 능력, 공동체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 및 연대 능력, 인권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참여와 실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인권교육의 목표와 학교 인권교육의 세부 목표는 본 연수내용의 목적과 방향과도 같이 하지만, 연수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다 학교공동체에 적합한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을 인권 교육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재정리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2020)는 「초·중등 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및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안 연구」에서 학교 인권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인권교육을 활성화·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수 목표

인권교육은 개인의 인권의식과 함께 학교공동체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학교가 학생들에게 인권을 교육하는 장일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자체로 인권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학교공동체의 인권문화·인권감수성 향상과 더불어 인권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즉, 본 연수는 인권의 개념과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구성원으로서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인권 문제에 대응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권 문제의 쟁점의 맥락과 의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여 학교공동체 내에서 행동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구성원을 위한 교육 및 교육활동을 설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조에 따라 ‘인권에 의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교육’을 학습원칙으로 따랐습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인권적이어야 하며, 교육의 목적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참여자의 역량강화와 전 사회적으로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특징과 내용

인권의 의미는 개념이 생겨난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는 동시에 현재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기존의 인권교육에서 제공하였던 인권 개념과 권리로서의 접근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통용되고 있는 인권의 오해를 풀어내어, 인권교육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인권교육과 관련된 인권활동가와 대화, 협력, 연결, 공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인권을 이론적 지식 측면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자신의 삶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해온 인권활동가의 실천적 지식을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인권의 각 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용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전체 6개 강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서 연수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총 12시간 이상 필요한 분량입니다. 특히, 수업에서 진행되는 문화 콘텐츠와 매체를 통해 인권수업의 실재가 어떠한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워크숍 운영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록으로 인권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인권교육에 널리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해당 연수는 목적과 일정에 따라 주제별 강의와 활동 프로그램을 엮어 세부주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수를 꾸리실 때는 함께 개발된 교장용 프로그램과 교감용 프로그램, 교사용 프로그램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공동체용】

함께하는 인권교육의 여섯 가지 접근			
	주제	교육명	집필자
1	사회문제	인권의 눈으로 세상 톺아보기	김은희
2	주요 결정례	주요 결정례 함께 읽기	김지우
3	그림책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	이태숙
4	도서	인권 추천도서 활용 방법	송승훈
5	영화	인권을 돌아보는 영화수업	차승민
6	공동체세우기	인권친화적인 학교공동체 세우기	배희은
	부록	인권교육 교수·학습 참고 자료	조성범

이하 세부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인권의 눈으로 세상 톺아보기」는 사회문제를 인권적 시각에서 함께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 「주요 결정례 함께 읽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 등에서 제시한 교육관련 주요 결정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하는 글입니다.

셋,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은 다양한 인권의 주제를 담은 그림책을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넷, 「인권 추천도서 활용 방법」은 인권문제를 책으로 어떻게 다가서는가에 대해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용, 교과 수업에서 활용, 동아리에서 활용 측면에서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인권을 돌아보는 영화수업」은 인권문제를 다루는 영화를 포함한 영상매체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실천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세우기」는 인권친화적 교육과정 운영, 학교경영과 조직 구성의

핵심으로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계획에 접근하는 과정을 워크숍 형태로 진행합니다.

본 연수에서 제시하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현장교사들의 교육적 맥락과 인권에 관한 교사로서 고민과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다양한 형태로 수업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연수를 진행할 때는 활동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참여하는 교사의 개인 사유를 담아 각자의 수업 활동으로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수업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각 활동이 담고 있는 인권적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를 함께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인권교육 수업 활동을 통해 학교가 인권적 논의에 있어서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프로그램 활용 방안

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8개월간 연수 프로그램의 기획-실행-평가를 통해 내용 구성과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학교장, 교감, 교사, 학생에 이르는 학교 전 구성원에게 맞는 수준으로 내용을 고르고 다듬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먼저 고민하신 현장교사들이 징검다리가 되어 인권과 교육을 잇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제안해주신 기관과 인권단체, 연구소, 연구모임 등에서 제공해주신 자료와 인터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은 학교현장의 맥락에 적합하게 인권교육의 내용을 구성하여 하나의 예로 제공함으로써 인권교육을 어떻게 시작하고 확장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인 프레임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여기 제시한 교육내용과 활동을 기초로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적 논의를 지속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물론 본 프로그램의 활용은 학습자들이 가진 문제의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참여자들이 스스로 던져볼 수 있는 예상 질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램 활용 방안과 관련 질문】


활용 방안	질문
인권 의식에 점검	나는 인권의 주체로서 인권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으며, 어떻게 실천해왔는가?
인권의 내용 이해	나는 인권 개념과 구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인권 문제에 대한 성찰	나는 일상에서 접하는 인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인권을 주제로 한 수업	나는 어떻게 인권교육을 수업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현장 변화를 위한 실천 아이디어 탐색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시도할 수 있는가?

개발과정에서부터 인권분야 각 전문가와 현직 교육관계들이 함께 프로그램 기획과 집필 자문에 참여하며, 현장의 실제적인 고민들을 바탕으로 실천적 지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내용과 형식을 구성함으로써 광범위한 인권 논의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교육을 어렵고 딱딱하게 여겼던 학습자라 하더라도 여기 제시된 다채로운 주제와 사례, 활동을 통해 인권 문제를 살펴본다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수 프로그램 자료집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형성해가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기대합니다.

PART 02



함께하는 인권교육의 여섯 가지 접근



2부 함께하는 인권교육의 여섯 가지 접근은 학교구성원의 인권문해력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에서 인권교육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접근 방법으로, 사회의 인권 문제·주요 결정례 분석, 도서·그림책·영화 등 매체의 활용, 인권친화적인 학교공동체 세우기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결을 강화하고, 영화, 문학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방법으로 인권 문제의 접근성을 높이고, 깊이 있는 탐구를 끌어낼 것을 기대합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인권교육을 고민하신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여섯 가지 접근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의 눈으로 세상 톺아보기

김은희 (사)인권정책연구소

인권은 불편하거나 무용한 것이라 여기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주장의 저변에는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인권에 대한 오해와 함정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맞닥뜨리는 인권에 대한 오해들 속에 담긴 인권의 진실을 함께 찾아나서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상호존중과 배려라는 개인의 미덕이 인권 보장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모든 사람의 지속가능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 즉 사회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접근이 궁극적인 인권보장의 바탕이라는 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모든 권리주장이 인권인가?’ 라는 문제를 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서로 약간씩의 인권침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사례를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주장되고 있는 수많은 권리중에서 인권인 것과 인권이 아닌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봅시다.

타인의 존엄을 부정하거나 손상하는 권리 주장,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여된 직무상 권한(직권)을 인권이라고 혼동하여 저지르는 오류를 인식할 수 있는 ‘인권의 프리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한 국가시스템의 책무구조를 망각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칫 만인의 인권은 만인의 인권과 충돌한다고 인식하기 쉽습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능력주의 사고방식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능력만큼 존엄을 영위한다는 무한의 양극화로 우리를 몰고 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긴장해서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권과 인권은 본디 충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권보장이 부족한 상황일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먼저 물을 수 있을까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인권이다?

사례1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동안 저녁 11시 끼니를 때우러 오는 남매를 손님으로 매일 만났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와 그보다 더 어린 남자 동생은 도시락을 샀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발급되는 '아동 급식카드'로 말입니다. 동생이 배고프다고 칭얼댔지만, 누나는 늘 도시락 하나만 골랐습니다. 저는 이 남매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에 라면 같은 걸 미리 계산해놓고 남매가 도시락을 사면 '사은품'이라면서 함께 줬습니다. 남매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출처: 신은정(2019.01.06.). 국민일보*

Q 내가 기자였다면 어떤 취재를 더 해야 했을까요?

정말로 멋진, 시민상에 오를 만한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 생존하기 힘든 세상에서 내 것을 내어 어려운 이웃의 삶을 돌본 아름다운 이야기이죠. 정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미담 기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담 주인공의 선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에는 다른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동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이 남을 것입니다. 저도 그 같은 마음에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해당 기사를 찾아보았지만, 이 기사는 두 달 주말 동안 일해 받은 30만 원을 그 소녀에게 억지로 안기고 왔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들여다본 기자의 렌즈에 아쉬움이 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이 기사를 취재한 기자라면 무엇을 더 취재하고 싶으신가요? 아니, 무엇을 더 취재해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동이라면 누구나, 나아가 아동이 아닐지라도 누구나 인간다운 식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세계인권선언」 등의 문서를 소환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 속에 등장하는 아동들은 ‘왜’ 이러한 지원시스

* 신은정(2019.01.06.), “편의점 알바가 두 달 알바비를 다 날린 이유”,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967682> 에서 검색

템에 연결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기자정신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네가 똑바로 못하니 인권침해나 당하고 바보처럼 사는 거다.
-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무시당하는 거 아니냐.
- 문단속을 제대로 못 했으니 도둑이 든 것 아니냐.
- 장사가 잘 안되니 아르바이트생도 사장님을 배려해 노동권 보장만을 주장할 일이 아니다.

아마 이보다 더 많은 질문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을 정리하다 보니 걱정이 더 커 집니다. 이 사안이 이렇게 미담의 소개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조바심도 들고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콩 한 쪽도 나뉘 먹는 것이 인권이라는 말이 어불성설임을 드러내는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이것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다가가는 렌즈를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이들에게 인권 보장은 늘 헛헛합니다. 오히려 더 궁핍해지기 일쑤죠. 왜일까요?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권 보장은 국가와 지방정부 등 사회체계가 궁극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입니다. 개인끼리 서로 돕고 살면서도 충분히 인간다운 삶이 가능했다면 굳이 국가체제를 소환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보장에 있어서 국가체제의 의무를 부정하는 이들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닐까 하는 농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안의 표면만을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뿌리들을 탐색해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인권의 눈이고 인권감수성입니다.

흔히 인권감수성을 존중과 배려, 역지사지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인성감수성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이는 인권침해적 상황의 반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점에서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이 청년은 주중에는 직장을 다니며 주말의 남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사안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상황에서 결식아동들을 만난다면 어땠을까요? 쉬이 내 노동임금

을 떼어서 내밀 수 있을까요?

콩이 한 쪽밖에 없으니 너희들끼리 잘 나눠 먹으라는 건 매우 인권침해적 상황입니다. 우리는 양육강식의 상태에 놓이지 않기 위하여 국가에게 권력을 위임해 우리의 인권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콩을 충분히 늘리는 것이야말로 인권의 주장이고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일 것입니다.

인권과 인권이 충돌할까?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존엄과 인권을 부정하는 권리는 인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혐오와 편견, 차별을 발산하기 위한 권리는 인권이 아닙니다. 언뜻 참 당연한 말 같기도 한 그 의미를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2 등기부등본

살던 주택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집을 내놓은 김씨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이혼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고 당황하여 등기소를 찾아갔다. 등기부를 떼어 본 김씨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김씨는 전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살던 집을 넘겨받았던 것인데,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 원인 기재란에 이러한 사실이 적혀 있지 않은가.



표제부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콘크리트조 5층 건물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보존등기	2001. 4. 28. 제1234호		소유자 김남권 600101-123456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6
2	소유권이전	2004. 7. 7. 제2345호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소유자 김남권 610101-23456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6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을 구】 (소유권)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1	전세권설정	2003. 10. 30.	설정계약	전세금 1억 전세권자 김건세 전세권 설정 기간 2003. 10. 30로부터 2년

“인권
정책
연구소”
Korea
Human
Rights
Policy
Institute

등기부등본에 이혼 사실과 사유를 명시

그림 출처 : (사)인권정책연구소, 2019*

* (사)인권정책연구소, 「2019 서울인권수첩」, 서울특별시, 2019, 54쪽.

이 사례와 관련하는 당시 문제 제기를 받은 대법원(등기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종 관할)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의 표시로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례에 대하여는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나라면 이혼한 사람의 집이라면 계약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집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그 집주인의 이혼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집을 사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이혼 사실에 대한 ‘알 권리’라는 인권이 있고 따라서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장이라는 인권만 챙기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Q 그럴까요? 언뜻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한 이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권리이므로 이처럼 편견과 차별을 발산하기 위한 권리는 인권이 아닙니다. 즉, 이 사례에서 매수인 측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인권으로서 보장되는 알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누군가 인간의 존엄을 부정하거나 해치는 말과 행동은 인권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혐오표현을 인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이유, 나아가 이를 멈추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사용)의 7장.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읽는 인권/인권정책연구소** 특강을 참고하세요.)

이처럼 사회적으로 마치 인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비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인권은 본디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본 사례와 같이 한 쪽이 인권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닌 경우, 즉 정당한 권리가 아니거나 인권이 아닌 직무상 권한인 경우 등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인권의 충돌이 아닌 인권의 보장이 부족한 상황이 본질인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우리는 쉽사리 인권과 인권이 충돌한다는 프레임에 빠져 민민民民 갈등처럼 사안을 해석하거나, 서로 양보하는 것만이 미덕인 것처럼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 보장의 궁극적인 책무자인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민 갈등으로 여긴다면,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 구현이라는 인권 실현의 모습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사회를 향해 인권을 더 제대로 보장하라는 요구를 최전선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이르기까지의 지금 당장의 문제를 후방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읽는 인권」*에서 살펴본 것처럼 혹시 부당한 차별적 인식을 합리적인 것으로 둔갑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다음 사례가 바로 그런 사안이 아닐까 합니다.

인권과 인권이 충돌? 어찌죠?

사례 3 직장어린이집

그런데 정말 인권과 인권이 충돌할 수 있는 건가?

공공기관 A에 5년째 근무하는 김씨는 지난해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을 앞두고 있다. 근무지인 A에는 직장보육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출산 전부터 입소 대기 신청을 해둔 터였다. 그런데 복직이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아이가 올해 입소 순위에 들지 못하였다고 통보받았다. 자세히 물랐는데 이제 알아보니, 김씨는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신분이라서 입소 순위가 2순위라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 신분이 아닐 뿐이지 옆의 공무원 신분의 동료와 하는 일에 차이도 없는데,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운영지원과에 시정을 건의하였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A어린이집 운영 규정상 불가하다는 답변이다.



이에 A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개정을 요청하였지만, A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는 영유아보육법상 현 운영 규정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공무원이 아닌 직원 자녀의 입소를 허가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Q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자는 이 직장에서 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의 보육권을 먼저 보장해야 하므로 합리적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진실일까요? 우리 학교에도 중심 업무가 따로 있을까요? 무엇이 중심업무

* 본 교재와 함께 발간된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사용)의 7강. 차별과 혐오를 통해 읽는 인권/인권정책연구소를 참고.

일까요? 이런 질문들 속에서 뭔가 아득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업무는 그 조직에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업무를 하는 노동자는 모두 우리 조직의 중심 업무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사는 존재에 불과하고, 노동에는 사람이 담긴 것인데 참 어이없게도 우리는 그것을 서열화하는 편견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가볼까요. 이 사례에서 공무원도, 무기계약직도 모두 A기관의 직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죠. 그렇다면 무기계약직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는 규정에 따라 입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의하여 입소가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법적으로 어려운 해석이라서 해당 운영위원회에서는 달리 해석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운영위원회에는 법률전문가가 위원으로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법 규정을 아주 차별적인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합헌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문자적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문의 내용을 헌법의 규정과 가치·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률해석의 기본적 사항이므로 법률전문가가 이를 몰랐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사안은 전형적으로 인권보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맞벌이하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퇴근 시간까지 아동을 안정적으로 보육해줄 곳이 마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그만한 보육 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정말 이런 경우야말로 모두가 보장받아야 할 인권인데, 인권보장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마치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인권이 충돌하는 것인 양 착시가 벌어진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권보장의 부족을 인권과 인권이 충돌한다고 언명하는 순간, 마치 개인과 개인의 권리 다툼인 양 받아들이게 합니다. 민민갈등으로 치부되는 것이죠. 문제는 민민갈등의 양극화 기제입니다. 이러한 경우 책임 단위에서 인권 보장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승자독식이라는 양극화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형국입니다.

이 사안의 결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결국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과 무기계약직 노조 결성 등의 흐름 속에서 개선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데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이것이 법까지 개정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나 씁쓸해집니다.(※어린이집 입소자격 개정,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항목 추가됨) 누구도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진실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 사회의 인권 인식과 인권보장 수준의 향상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주요 결정례 함께 읽기

김지우 (사)인권정책연구소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위한 권고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의견표명’은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보호의 방향과 여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교육자료가 됩니다. 학교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인권 관련 사안들을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에서 찾은 몇 가지 결정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권기구에서 나온 결정례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かを 중심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즉,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인권적 관점을 단숨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례*라 부르는 것은 재판을 통해 나온 판결과는 다릅니다. 결정례에서 나오는 권고들은 판결과는 달리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권적 관점에서 고쳐나가야 할 문제를 밝히고, 그에 대해 인권 친화적이고 공동체 내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권고하는 것이지요. 인권기구에서 나온 결정들은 우리의 인권적 시각을 틔워주고, 우리가 사는 사회의 인권증진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결정례는 하나의 시각이고, 보기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선생님들도 제시된 사례를 보면서 내가 그 사안을 **인권적으로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나갔을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결정례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내린 결정으로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

결정례 1.

학생의 교직원 사용 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20진정0420500)

한 학교에서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교무실 등의 공간을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하루 20~30분 동안 청소를 해야 했고,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 청소를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교무실도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에 학생들이 청소를 하며 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1. 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비자발적인 방법으로 배정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권고함.
2. ○○시 교육감에게 ○○시교육청 소속의 학교 중 피진정학교와 같이 행하는 사례를 개선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Q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권고를 하였을까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추구권에는 행동자유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합니다(헌법재판소 1991. 6. 3. 89헌마204 결정). 학생 역시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의 독자적 주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청소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11. 29. 2011헌마827 결정).

또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에 있어 자유롭게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역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시교육청이 청소 활동을 통해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청소하면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 데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공동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청소 시간을 통해 학생과 교사가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장실, 교무실 등의 공간을 학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청소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다른 방식을 통하여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권장하겠다는 당사자의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학교생활은 학교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 과정이라는 점,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 역시도 민주적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 활동의 일환이라는 점, 학생 활동은 교육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있어 정책 및 프로그램에 우선적 고려사항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의 견해 존중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학생은 단지 교육 대상자가 아니라 주체자입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을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소활동과 같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서 민주적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학생들은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적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동·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아내는 노력도 학교공동체가 해야 하는 노력의 일환일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볼 내용은 징계를 이유로 임원 후보자자격을 제한하는 학칙에 대한 개선 권고입니다.

결정례 2.

징계를 이유로 임원 후보자격을 제한하는 학칙의 개선 권고

서울시교육청(권고 2019-11)

어느 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인 「학생회 운영규정」 제4조(후보자격) 제3항에서 학생회장 후보 자격을 ‘교칙에 의해 학교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제한하는 학교규칙이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에 맞게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대상기관의 장에게 학교규칙의 임원 후보자격 제한규정을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Q 학교규칙 제·개정과 학생인권 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8조 제3항에서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전의 결정 징계처분자의 학급 임원자격 박탈 및 학생회장단 피선거권 제한에서 학생회장 후보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징계의 경중,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함 없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계학교에 학교규칙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흐름에 따른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17년부터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제시하여 학교의 규정에 있어 제·개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예시안은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제한에 대해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학교 내 합의절차를 통해 결정한 입후보자의 일정기준 징계기록을 유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관련 규칙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 중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제한 대상이 된다는 점과 시간의 경과 등 자격미달 요건에 대해 세부적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징계 단계 이상만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학생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규제적용의 범위가 과도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규칙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서는 교육을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후보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기보다는 유권자인 학생들이 입후보자의 임원으로서의 자질을 판단하여 선출하도록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통한 민주적 선거과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교육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학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결정례입니다.

결정례 3.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서울시교육청(권고 2018-01)

신청인들은 학생생활규정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므로 적절한 절차를 밟아왔고, 대다수의 학교구성원이 이 규정에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규정을 유지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Q 휴대전화 사용제한 권고의 법적 배경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생활규정 등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규칙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이며, 특히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등 관련 규정이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통해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법제도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과 사전 동의를 수집함에 있어서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6년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2017년 ‘중학교의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개선 권고에서 수업시간 외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과 학부모가 기본권 제한에 동의하고 만족하고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의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및 제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휴대전화 소지와 관련하여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지 오래 되었기에 다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논의와 더불어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위급 상황으로 휴대전화로 즉시 연락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기행동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통해 가족, 친구 등과의 소통으로부터 얻게 되는 행복추구권 역시 제한될 것입니다. 이에 교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며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도구이자,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휴대전화 소지,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교칙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학생인권 조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13조

학생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2조 제4항

교장 등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3조 제4항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결정례 사례 분석

제시된 결정례로 토의에 참여해주세요.

사생활의 자유 등 침해의 건

일어난 일

금연지도 과정에서 징계를 목적으로 소변검사를 진행함. 그 과정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본인의 소변을 담아 오는지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음.

권고

금연지도 방법에서의 소변검사를 지양하고, 학생에 대한 금연지도 과정에서 징계가 아닌 인권친화적 선도를 위한 금연지도 목적과 수단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더불어 교직원에 대한 인권 등에 관련한 직무연수를 시행하기를 권고함.

다음 결정례로 생각해보면 좋은 이야기

1. 제시된 결정례는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어떤 기본권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2. 우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 이 사례와 연결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3.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

이태숙* 서울덕수초등학교

1 왜 인권감수성인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인권감수성은 얼마나 작동되고 있을까?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웃는 사람을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아이를 꾸중하는 부모나 선생님을 볼 때, 느린 걸음의 노인을 향해 경적이 울릴 때, 배달원이나 아파트 관리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며 비난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 우리의 인권감수성은 예민하게 작동하가? 잘못된 상황은 인지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인권감수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

‘감수성’이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성질을 말하며, ‘인권’은 사람이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감수성’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인권적인 요소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말한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은 5학년 1학기 사회 단원을 통해 등장한다. 인권의 의미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이 나오고, 헌법이 설명된다. 헌법의 기본 철학이 ‘인권보장’에 있다는 인본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때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은 인권의 뜻과 헌법의 기본 철학, 인권이 지닌 자유와 권리의 항목이다. 이러한 인지적 학습으로는 ‘인권감수성’을 기를 수 없다. 인권감수성은 도덕교과를 통하여 다뤄지고 있는데 도덕교과 수업이 끝났다고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 보호의 목소리가 커지고, 인권침해의 사례가 다각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교육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 이태숙 선생님은 『인권 감수성을 기르는 그림책 수업』 저자로 그림책을 통한 인권교육의 실천적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이 인권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양육자와 교육자의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교육이 이뤄질 때 피양육자와 피교육자가 인권감수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양육자와 교육자의 인권감수성과 피양육자와 피교육자의 인권감수성부터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어른의 인권감수성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어린이의 인권감수성도 기대할 수 있다.

2 인권감수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매일 아침 그림책 읽어주기로 시작하는 필자가 ‘인권감수성 기르기’의 교육 매체로 ‘그림책’을 떠올리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사회교과의 인권 단원을 마치고 ‘이렇게 가르쳐서 인권을 보호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을 하니 고개가 저어지고, 해답은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인권침해의 사례나 인권의 이야기를 품은 그림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책을 모으며 그림책 속에 정말 다양한 인권의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야기의 세계에는 만남이 있고, 갈등이 있고, 타협이 있고, 이해가 있다. 그림책은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이나 학년에 상관없이 읽고 이야기를 나눌 거리가 무궁무진한 매체다.

함께 그림책을 읽으면 다루고자 하는 쟁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한 권의 그림책을 읽는 데 걸리는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권감수성을 예민하게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림책에 익숙하지 않은 이에게 그림책으로 인권감수성을 기른다는 것은 낯선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림책의 특징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하는 매체다. 글이 말하지 않은 것을 그림이 말할 수 있고, 그림이 보여주지 않는 것을 글이 보여줄 수도 있다. 글과 그림의 비중을 구태여 따진다면 그림이 더 많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글만 읽어주고 끝낼 수 없다. 그림을 충분히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안내해야 한다. ‘그림에 무엇이 있는가? 왜 있을까? 이때의 감정은 무엇일까?’ 등 그림이 담고 있는 시각적 언어를 읽어나

가고 이해하는 능력을 함께 길러줘야 한다. 읽어주는 사람은 그림을 글이 말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삽화’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림책은 한 개의 관점을 지닌 책이 아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정답은 없다. 읽어주는 사람이나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그림책을 대해야 한다.



『숨바꼭질』의 서사는 ‘숨바꼭질’ 노랫말로 되어 있어 음악성이 강하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달님이 찾을라. 꼭꼭 숨어라. 해님이 찾을라.”라는 노랫가락이 흐르지만 그림은 6·25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다. 이 그림책을 읽어줄 때 그림은 보여주지 않고 글만 읽어준다면 이 책이 어떻게 6·25 전쟁을 다루는지 알 수 없다. 이처럼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독자에게 전달한다.

『숨바꼭질』 김정선, 사계절, 2018.



『달려!』의 흑인 소년 레이는 싸움이 일상인 아이다. 그런데 백인이며 권투선수였던 새로운 교장 선생을 만나 운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는다. 이 책의 주제를 무엇으로 읽을까? 우리 반 아이들은 초반에는 ‘인종차별’을 이야기했고, 교장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바른 교육’이 주제라고 하기도 했으며, 마라톤을 하는 장면에서는 ‘인생의 고비’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교장으로 성장한 레이가 새로운 아이를 만나 달리는 것을 보며 ‘분노 다스리기’로 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달려!』 다비드 칼리 글, 마우리치오 A.C.파렐로 그림, 나선희 옮김, 책빛, 2017.



『앵그리맨』은 가정폭력을 다룬 그림책이다.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가정폭력의 실상을 보여주고 후반부는 치유의 과정을 보여준다. 가정폭력의 장면을 읽어나갈 때면 마음 졸이도록 운율을 넣은 서사가 두려움과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후반부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족과 분리하고, 내면 아이를 달래며, 폭력의 대물림인 근원적인 과거를 치유하는 과정이 그려진다. 이때 치유의 주체는 의사가 아니라 폭력 행사자인 아빠다. 예전의 관점이라면 ‘가정폭력’은 그림책의 주제로 적합한 내용이 아니었다.

『앵그리맨』 그로 달레 글, 스페인 뉘후스 그림, 황덕령 옮김, 내인생의책, 2014.

그림책의 주제는 다양하다. 예전에는 그림책을 아이들이 보는 책으로 여겨 아름다운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오늘날은 ‘0세부터 100세까지 즐길 수 있는 책’(『그림책의 힘』, 가와이 하야호 외, 2003)으로 인정받으며 인기 있는 장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삶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인생 전반의 이야기가 그림의 주제가 되고 있다.



『전쟁 A GUERRA』은 그림이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그림책이다. ‘구에라(guerra)’는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로 ‘전쟁’을 의미하는데, 전쟁은 빠르게 퍼지는 질병처럼 일상을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한다. 그림은 무성영화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읽고 나면 으스스 한기가 든다. 실제 전쟁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전쟁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과 이미지를 독자에게 각인시키는 작품이다.

『전쟁 A GUERRA』 조제 조르즈 레트리야 글, 안드레 레트리야 그림, 엄혜숙 옮김, 그림책공작소, 2019.

그림책은 짧은 서사에 다양한 색채와 기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며 정서 함양에 효과가 높은 예술작품이다. 짧은 서사임에도 기승전결의 완결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 서사가 그림과 만나 강렬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그림책 선택의 기준

아이들과 인권 관련 그림책(이하 인권 그림책)을 읽어나가며 다양한 그림책을 만났다. 2학기 시작과 함께한 인권 그림책 읽기는 12월에 가서 매듭을 지었다. 살펴보니 우리 삶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없었다. 그 많은 책에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해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만의 규칙을 수립해야 했으며, 순서를 정해야 했다.

아이들 수준에 맞고 좋은 그림책을 선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무엇보다 그림책을 많이 읽어보는 경험이 누적되어야 한다. 얼마 전에 읽은 책에서 그림책 한 권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치는 경험을 했다. 아는 책이라고 깊은 생각 없이 바라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읽고 났을 때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는 책이면 무조건 만족이다. 내게 재미와 흥미, 감동을 준 책이라면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내가 읽으며 몽클해지고 먹먹했던 감정을 불러온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 자꾸 다양한 그림책을 읽으며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지 느

굿하게 느껴보면 좋다. 또 앞서 읽고 이야기한 책(그림책 서평집)을 읽으면 알지 못했던 그림책의 다양한 목록을 얻을 수 있다.

그다음에 유심히 보는 것은 언어적 측면이다. 문장의 구조가 바른지, 아이들이 이해 가능한 낱말을 사용했는지 살핀다. 과한 비유적 표현이 들어간 문장은 피하는 편이다. 문장의 구조를 보는 것은 유아 그림책 수준인지 어린이 그림책 수준인지를 살피는 과정이기도 하다. 낱말 한두 개로 구성된 문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초등학생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문장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가르치지 않지만, 즐겨 읽다 보면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문장의 구조를 습득하고 언어 습관을 형성한다.

문학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32쪽 내외의 짧은 서사 안에 기승전결의 완벽한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림책을 어린이들이나 보는 책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예술적 측면도 중요하다. 다른 책과 달리 그림책은 그림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라서 그림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아이들 정서 함양에 한몫하는 그림책이 되어야 한다. 사실성을 강조한 그림, 예술성을 강조한 그림, 개성을 강조한 그림 등 그림 작가에 따라 그림이 아주 다양하다.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충실한 그림이면 된다. 아이들은 글과 그림을 융합해 보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머리에 그린다. 더러 아이들이 “이런 그림은 나도 그리겠네.” 하는 작품도 있다. 그런 반응이라면 반가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림책이면 좋다.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이끄는 책이면 짧은 그림책으로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앞에서 말한 해석이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점과도 연결되는데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달려드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던지시 말을 거는 책이 더 깊은 인상을 준다. 책을 읽고 나서 다양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이런 책들이다.

읽어주는 순서는 불편감을 일으키지 않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나’로부터 시작하여 가족, 친구, 이웃으로 확대하고, 여성, 노인, 어린이 등 힘이 약한 사람들을 지나 장애인, 노숙자, 난민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는 과정으로 넓힌다. 또 역사적 인권 유린을 살필 때는 우리의 역사와 거리가 있는 유대인 차별, 흑인 차별을 거쳐 우리 역사로 들어가는 것이 무리가 없다.

인권 그림책으로 수업하기

인권 그림책으로 수업할 때는 그림책의 내용 이해를 뛰어넘어야 한다. 독해력 향상을 위한 읽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와 내 이웃으로 눈을 돌려야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까지 나아가야 한다. 가능하다면 말과 행동을 직접 시연해보는 것이 좋다. “내 몸 만지지 마세요. 어른 들께 알릴 거예요!”라는 말은 두려운 상황에서는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런 점을 살피 배에 힘을 주고 복창하게 하거나 개인적으로 돌아가며 연습하는 활동까지 했으면 좋겠다. 또 학교 폭력과 관련된 활동이라면 역할극을 하며 실제 인물이 되어보는 것도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는 가해자의 역할과 피해자의 역할, 방관자의 역할을 번갈아 해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인권 관련 그림책’이라는 명칭은 없다. ‘어린이 인권’이나 ‘인권’을 전면에 드러내는 책은 마음을 울리는 책이라기보다는 인권을 설명해주는 정보책에 가깝다. 아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책으로 인권 수업을 해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책이면 된다.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일 수도,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장애인이 될 수도, 노숙자가 될 수도, 청소 노동자가 될 수도, 난민이 될 수도 있을 뿐이다.

인권감수성은 그림책 한 권 읽었다고, 수업 한 시간 했다고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존중과 배려’는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덕목이다. 마음으로 한 생각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행동으로 직접 하지 않으면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실천하는 인권감수성이 되도록 하는가가 숙제다. 지속적인 그림책 읽어주기를 권한다. 일주일에 하루, 인권 그림책을 읽어주는 날로 정하고 한 학년 내내 실천한다면 아이들의 인권감수성은 예민해지고 존중과 배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인권 그림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실제 사건에 바탕을 둔 그림책이 많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 그림책의 특성상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 그런 그림책을 읽어주거나 수업으로 진행할 때는 그 책의 배경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공부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작가의 비유와 상징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인물을 그림책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림책의 내용만으로 한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3 그림책으로 인권감수성 기르기 수업은 어떻게 할까?

인권 그림책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는 정답이 없지만 여기서 두 권의 책을 들어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소개하려 한다.

『숲속 작은 집 창가에』(유타 바우어 지음, 2012)



‘숲속 작은 집 창가에’라는 유아 노래가 있다. 버전에 따라 숲을 내다보는 사람이 ‘작은 아이’이거나, ‘작은 소녀’로 조금씩 달라진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물은 ‘토끼’다. 집 안으로 돌아온 토끼에게 아이가 하는 말은 “편히 쉬어라!”이다. 이 노래는 손 유희를 하며 부르는 노래로 필자가 어렸을 때도 불렀던 노래다.

이 노래를 유타 바우어는 새로이 해석하여 서사를 바꿨다. 등장인물을 노루, 토끼, 여우, 사냥꾼으로 하여 생태계의 먹고 먹히는 관계를 연결했다.

이 노래 그림책을 어떻게 인권 그림책으로 읽을까? 우선 원래 노랫말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부터 살펴보자.

숲속 작은집 창가에 노루가 밖을 보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땅 쏘려고 해요.”

“작은 토끼야, 들어와!” “손을 잡으렴.”

숲속 작은집 창가에 노루가 밖을 보는데

여우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땅 쏘려고 해요.”

“작은 여우야, 들어와!” “손을 잡으렴.”

숲속 작은집 창가에 아무도 밖을 보지 않는데

사냥꾼 아저씨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사냥꾼 아저씨 들어오세요.” “손을 잡아요.”

이 그림책은 ‘환대’를 말하는 책이다. 노루가 밖을 내다보는 집 주인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동물은 초식 동물인 토끼에서 육식 동물인 여우로 이어지고, 나중에는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 사냥꾼이다. 노루는 그 누구도 마다하지 않는다. 분명 토끼는 여우를 무서워하리란 걸, 먼저 도착한 동물과 주인까지도 사냥꾼은 위협적인 인물임이 틀림없으나 문을 열어 환대하고 손을 잡도록 만드는 노루다. 노루의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나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는데 정말로 환대할 수 있을까? 이 서사에서 핵심은 “손을 잡으렴!”이다. 서로를 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만드는 일이다.

그림은 서사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노루가 토끼의 등장에는 두려움 없이 문을 열어주고 “손을 잡으렴.” 장면에는 노루의 음식과 토끼의 음식이 식탁에 채워진 것이 보인다. 같은 ‘초식 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작용한 환대다. 여우가 집을 향하는 모습에 노루는 먼저 여우가 오고 있다고 알리고, 토끼는 자동 반사로 온몸을 떤다. 들어오라고 하면서 노루는 문 뒤로 숨는다. 여우와 토끼가 손을 잡도록 하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토끼는 벌벌 떨고 노루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것이 보인다. 의자는 쓰러져 있고 정갈하던 식탁은 어질러져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토끼의 환대는 시간이 걸렸던 거다.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던 숲의 동물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었던 거다. 3절의 첫 장면에서는 아무도 내다보지 않고 있는데 세 동물은 무얼 하고 있었을까? 셋은 카드놀이로 빠져 있어 밖의 사정은 몰랐다. 이들에게 육식 동물, 초식 동물의 경계가 사라졌다. 사냥꾼에게 들어오라고 하는 장면에 벌써 집 안은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어질러진다. 여우도 토끼도 몸을 숨기기에 바쁘다. 하지만 노루는 모두를 식탁으로 이끌어 또 친구로 만든다.

환대는 나와 같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하여 행동하는 것이 아님을 작가는 이 책을 통하여

이야기한다. 공통점이 많은 사람(아마도 이들은 가까운 이웃일 거다)에게 내 곁을 내어주는 일은 쉬운 일이나, 나와 공통점이 별로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도 환대해야 한다고 한다. 여우를 우리 입장에 빗대어 생각해본다면 북한 이탈 주민이나, 피부색, 문화, 언어 등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냥꾼’은 누구일까? 내 양식을 내놓아야 하고, 내 일자리도 나눠야 하고, 내 노후 연금도 나눠야 할지 모르는 누군가다.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난민’은 아닐까. 그리고 보면 노루의 마음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큰 마음이다.

그림에서 자유롭게 대화하기 좋은, 정답 없는 지문은 ‘작가는 집에 도착하는 동물들에게 옷을 입혔을까?’다. 그림을 보면 노루는 처음부터 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나중에 집에 도착한 토끼와 여우도 노루처럼 옷을 입는다. 마지막에 사냥꾼이 도착할 때는 문 밖에 빨래가 널려 있을 정도다. 사냥꾼과 개만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식탁에 앉는다. 왜 그랬을까? 정답은 모르나 아이들은 분명 그럴듯한 대답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서 한 가지 더 읽어낼 것이 있다. 바로 시간의 흐름이다. 창밖을 내다보던 노루의 집은 숲속에 있고 겨울을 그렇게 보낸 것이다. 아마도 긴 겨울을 보내며 외로웠을 것이고, 매일 창밖을 보며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 겨울의 끝자락 석양이 아름다운 날 토끼가 찾아오고, 둘이 밖을 내다보는 여름에 여우가 찾아온다. 셋이 되자 그 긴 기다림이 사라졌다. 그리고 가을, 사냥꾼이 찾아온다. 노루가 그토록 너그러웠던 마음의 한 자락이 느껴진다.

유타 바우어는 널리 알려진 노래에 몇 낱말만 바꿔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 알고 있는 노랫말에 새로운 이야기를 입히며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선 굵지 말고 환대 하라고.

이 그림책을 읽고 나면 노래를 익혀야 한다. 이 책의 가사로 이야기하며 의미를 되새기고, 손 유희를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노래에 익숙해지면 가사의 몇 곳 학급의 상황으로 바꾸어 친구들을 한 명씩 불러나가며 손을 잡는 활동으로 마무리한다면 금상첨화다. 아이들에게 살려달라는 이유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라고 해도 좋다. 한 명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명씩 하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1명 → 2명 → 4명 → 8명’하는 식으로 하면 학급 전체가 만나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입 없는 아이』(박밤 지음, 이집트, 2020)



『입 없는 아이』는 읽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히는 책이다. 연수 과정에서 소개받을 때는 ‘장애 이해’로 이해했으나, 책을 직접 접하고 보니 ‘장애 이해’보다는 ‘환대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목이 ‘입 없는 아이’여서 주인공이 신체적으로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선입견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다.

전학생 재인이 결석한 짝 폴에 대해 한 친구에게 물었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입 없는 아이.”라고 하는 대답을 듣는다. 그 후 재인은 ‘입 없는 아이’의 함정에 빠진다. 마음속으로 입 없는 아이를 그려보고는 다음 날에도 폴이 결석하길 빈다. 그런데 진짜로 다음날 폴이 결석하자 재인은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날 밤 재인은 의자 하나에 방이 네 개 있는 성의 꼭대기 층 꿈을 꾸다.

의자에는 까만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묶여 있었다. 그녀는 재인에게 목걸이를 보여주며 같은 보석 장식이 있는 반지를 찾아달라고, 그러면 자신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한다. 재인은 반지를 찾기 위해 파랑, 노랑, 빨강, 초록 방에 각각 들어간다. 파랑 방에서 춤을 추던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이 눈이 없다는 것에 놀라 ‘괴물’이라 소리쳤고, 그 사람은 그 소리에 춤을 멈추고 울었다. 재인은 파랑 방의 사람을 울게 해서 미안했다. 노랑 방에서는 흥얼거리며 화장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재인이 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은 재인의 표정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재인은 또 미안했다. 빨간 방으로 간 재인은 이번에는 코 없는 사람을 만나는데 소리 지르지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는데 울었다. 왜 우느냐고 물으니 다가가지 못한 재인의 마음을 본 것이었다. 재인은 또 미안했다. 마지막 초록 방에는 입 없는 아이가 있었는데 재인을 보고 울었다. 왜 우느냐고 하니 손가락으로 문을 가리켰다. 재인은 용기 내어 손을 잡았다. 입 없는 아이의 손톱은 검은색이고 손가락은 일곱 개였다.

우리는 낮가림이 심한 사람들이다. 나와 다른 사람이면 무의식적으로 한 번 더 쳐다보며 나와 구별하는 행동을 한다. 주인공 재인도 그런 인물이었다. ‘입 없는 아이’라는 말에 별의별 상상을 하며 그가 학교에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데 다른 점은 자기 행동(기도)에 대한 ‘미안함’을 갖는다는 것이다. 기본 정서에 ‘미안함’이 많은 재인이었던 거다. 재인은 꿈에서 각각의 방을 방문했

을 때도 그 방의 주인들이 올 때마다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작가는 ‘환대’를 말하면서 ‘미안함’이라는 감정의 역할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위에서 서사를 장황하게 설명한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봐주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괴물’이라는 말을 해 상대를 슬프게 하고, 두 번째는 거부의 표정으로 상대를 슬프게 하고, 세 번째는 다가가지 못하는 마음이 상대를 슬프게 했다. 상대방에게 어떤 것이 상처를 주는지 깨달은 재인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몸짓, 눈빛의 언어도 다스렸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까지도 다스렸다. 그리고 최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용기를 가지고 다가갔다. 사실 ‘환대’는 이렇게 힘든 거였다. 환대를 말하기는 쉬우나 환대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이렇게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작가가 얼마나 고심하며 우리의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였는지 느껴진다.

이렇게 도를 닦는 수련의 과정처럼 힘들다면 수도자가 아닌 평범한 우리 주위에서 환대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는 눈물을 꼭 삼키고 조그만 관심에도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모르겠다.

사실 이 책은 내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나부터가 환대가 힘든데 주인공 재인도 힘들었고, 다른 사람도 환대의 경지에 이르는 힘들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다. 그러나 이야기는 그래도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나와 다름이 너무 많고 겹치는 점이 없더라도 그에게 다가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가가 손을 내미는 일이 사람을 구하고 자신을 행복으로 이끈다고 말한다.

이 책으로 대화 나눌 한 가지 주제는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말로만 들어지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다. 차별이 이뤄지는 현장에 고정관념은 많은 역할을 한다. 내가 직접 경험하여 얻은 결론이 아니라 남들의 판단과 말로 만들어진 선입견이 고정관념으로 자리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이 그동안 경험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털어내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말한 타인에게 다가가는 용기는 이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무너뜨렸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가상 체험의 효과다. 재인은 입이 없는 폴에게 다가가기 위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꿈’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가상 체험했다. 상대를 배려해 말을 해야 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 몸짓도 부드럽게 해야 하며, 마음에 진심을 담아야 하고, 용기 내어 다가간 간접 체험을 하고 나서야 당당하게 폴을 만났다. 우린 이 과정을 어떻게 체득할 수 있을까? 역할극을 통하여 똑같이 가상 체험해보는 거다. 눈 없는 가면, 귀 없는 가면, 코 없는 가면, 입 없는 가면을 만들어 역할극을 하여 재인처럼 하나하나 체험하는 거다. 각각의 가면과 만나는 장면을

모둠별로 연습한 후 연결하여 하나의 극으로 표현하면 더 많은 아이가 동참하게 될 것이다.

4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일상을 기대하며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사회다. 이는 인구감소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으며, 노인의 증가로 노동 생산성은 떨어져 부족한 노동 인력을 이주 노동자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밀려오는 국제화는 세계시민으로서 다국적의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가는 자질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든 ‘나와 똑같다’라는 인권 보편적인 생각이다.

미래의 주인이 될 어린이에게 상호존중과 배려의 인권존중은 마음 깊이 내재되어야 하는 기본 덕목이다. 훈계하듯 다그치는 교육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림책은 이 교육에 훌륭한 매체가 될 것이다. 어른들도 정말 다양한 주제의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대화하며 배울 수 있다.

한 시기의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림책을 자주 접하도록 계획하고 수업의 진행은 몸이 움직이는 활동이 함께했으면 한다. 간접 체험이라도 몸을 움직이며 하면 실제 상황에서 더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은 머리로 이해하는 교육이 아니라 이해한 것이 마음을 울리고 몸이 움직여야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인권 추천도서 활용 방법

송승훈 의정부광동고등학교 /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 분과 물꼬방 회원

1 사회 문제를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

사회 문제를 알려주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시기는 지나갔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사회 문제를 알려주기만 해도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인터넷의 대중화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 정보가 열려 있어서,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도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안다.

2000년 이전 한국의 학교는 사회 문제를 알려주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 금기 문화에는 학생들에게 밝고 좋은 것만 보여주어야 잘 성장한다는 배려가 담겨 있었고, 그와 함께 사회모순을 학생들이 알면 문제의식을 갖게 될까 봐 불안해하며 통제하려는 검열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때에는 교사가 사회 문제를 알려주면 학생들이 뜨겁게 반응했기에, 사회 문제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교사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볼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에게 사회 문제를 알려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사회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잘 알기도 한다. 교사가 사회의 어떤 면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학생들은 안타깝고 화가 나지만 거기서 멈출 때가 많다. 사회 문제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욕을 보이는 학생은 많지 않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어쩔 수 없다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있다.

그런 까닭에 지금은 교사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알지만 해결 방법을 알지 못하면, 낙담하게 된다. 이때 해결 방법이란 근본적인 말 몇 마디가 아니라, 현실에서 곧바로 어떤 문제 상황을 조금이나마 낮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뜻한다. 희망이 멀리 있으면 그 희망이 내 것이 아니게 느껴지기도 한다.

문제를 알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 이것이 지금 한국 학생들이 상당수가 보이는 모습이다. 현실에서는 가짜뉴스와 불성실한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아서, 사회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교사가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여러 목소리 중에서 괜찮은 방안을 알아보는 안목이 중요하다. 이 방법을 현실에 적용하면, 현실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구나 하는 희망이 있을 때, 사람은 부정적인 기운에서 벗어나서 힘을 내게 된다.

2 교원 학습공동체에서 활용: 두 시간 독서토론

인권 도서 목록은 교사들의 책 모임이나 학습공동체에서 읽고 이야기 나누면 좋다. 독서토론은 익숙한 방법이지만, 막상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연해서 당황하기 일쑤다.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긴 사람은 책을 못 읽어오기도 해서, 책 모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때는 두 시간 독서토론 방법을 쓰면, 쉽게 이야기가 나와서 편하다. 두 시간 독서토론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

활동	시간(분)	하는 일
준비	10	모둠 구성과 역할 나눔, 함께 읽을 부분 정함
읽기	30	책에서 30쪽 정도 같은 부분 읽기
대화	40	마음에 드는 한 문장 소리 내 읽기 책과 관련된 세상일 또는 경험 말하기 궁금한 점 2개에 대해 답 찾기
나눔	15	모둠별로 재미있게 3분 이내로 말하기
마무리	10	모둠별로 소감 나누기, 다음 책 안내

책 모임 또는 학습공동체에서 독서토론을 하다 보면, 책을 못 읽어오는 구성원이 있다.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자꾸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모임에 그만 나오고 싶어지고, 나와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 한다. 또는 책을 안 읽고 와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의 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부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책으로 공부할 때는, 모여서 30분 정도 책을 읽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다. 미리 책을 다

읽어온 사람은 인상 깊은 부분을 다시 보면 된다. 미리 책을 읽어오지 못한 사람은 이 시간에 30쪽 정도를 읽어서 토론에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람 수가 많을 때는 모둠을 나누어 이야기해도 좋다. 4인 모둠으로 한다면, 모둠 안에서 역할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사람이 겹돌지 않고 활력 있게 참여한다. 이때 역할은 사회, 기록, 발표, 공감으로 하면 무난하다. 역할은 가위바위보로 정한다. 가위바위보를 하면 웃음이 터지면서 어색함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한번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이긴 사람이 사회부터 역할을 맡으면 된다.

독서토론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쉽게 하려면 다음 3단계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첫째,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찾아 소리 내 읽는다. 왜 그 문장이 마음에 드는지 이유도 설명한다. 핵심이나 주제를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상투적이거나 전형적으로 되기 쉽다. 마음에 드는 한 문장을 읽으라 하면 더 이야기 빛깔이 다채로워 대화가 흥미 있어진다. 한 문장은 누구나 쉽게 말하기에 입을 떼는 방법으로도 좋다.

둘째, 읽은 책의 30~40쪽 부분과 관련된 세상일 또는 경험을 한 가지 찾아서 이야기한다. 여기서 세상일이란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서 책과 연관된 내용을 말한다. 생각을 해야 대화가 의미 있어진다. 그런데 생각하려 하면 생각이 잘 안 난다. 생각하며 읽기는 '생각해봐!'라고 지시하기보다 내용과 관련된 세상일을 찾아 이야기하라고 하면 더 잘된다.

글과 연관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일은 성찰하는 읽기로 안내하기 위한 장치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쉽게 판단하지만 자기 일이면 쉽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각자의 사연과 정당성을 살피게 된다. 그리고 세상일과 경험을 한 사람에게 모두 이야기하라고 하면 개인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가 된다. 게다가 개인마다 세상일과 경험을 모두 이야기하면 대화 속도가 느려져서 지루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세상일이나 경험 중 한 가지만 이야기하게 한다.

셋째, 각자 두 가지씩 궁금한 내용을 적고 말한다. 토론 거리를 찾기보다 궁금한 점을 2개 찾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야깃거리가 나온다. 자기가 읽은 책 30~40쪽에서 궁금한 내용이 어도 좋고, 세상일이나 경험에서 궁금한 점이어도 좋고, 책의 어떤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에 대한 궁금함이어도 좋다. 각자 두 가지씩 궁금함을 적으면, 모임이 4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한 모임에서 여덟 개의 궁금함이 있게 된다. 그 여덟 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두 가지를 골라서,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답을 찾으면 된다.

3 교과 수업에서 활용: 책 대화하기

인권 추천도서를 무게 있게 활용하려면, 책 대화하기 수업이 적절하다. 책 대화하기는 학생들이 4~5명 정도로 모둠을 만들고, 그 모둠에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활동이다. 심화 활동으로 대화를 기록해서 보고서를 쓰는 수행평가로 해도 되고, 가볍게 카톡의 오픈채팅방을 이용해서 대화를 할 수도 있다.

카톡으로 대화하면, 학생들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그대로 남아서, 서로의 생각이 만나서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를 살필 수 있어서 좋다.

비대면 수업을 할 때에도 카톡의 오픈채팅방을 이용하면, 책 대화하기가 큰 어려움 없이 잘된다. 현실에서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도 카톡에서는 더 편하게 대화에 참여할 때가 많다.

인터넷에서 ‘책 대화하기’로 검색하면 교사들이 수업한 다양한 사례가 나오니, 한번 찾아보기를 권한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끼리 대화를 나누게 하는 것으로 교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각자 자기 수준만큼 책을 소화하기에, 그냥 내버려두면 활동이 너무 수준 낮게 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대화에 교사가 끼어들어서 적절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때로 질문을 던지고 의견을 제시해야 대화의 수준이 높아진다.

책 대화 준비하기

학생들은 모둠을 이루어서, 교사가 제시한 책 목록 중에서 한 권을 골라서 공통으로 그 책을 구해서 읽는다. 이때 학생들의 사고를 더 풍부하게 하려면, 교사가 제시한 책 목록에서 한 권을 고른 것 이외에 추가로 같은 주제로 개인마다 책을 한 권씩 더 준비하게 하면 된다. 이러면 학생은 총 두 권의 책을 읽게 되는데, 교사가 제시한 책 목록에서 한 권을 읽고, 모둠에서 선택한 책과 같은 주제인 책으로 자신이 고른 책을 한 권 더 읽는 것이다.

모둠 구성원들은 한 권은 같은 책으로, 또 한 권은 각자 다른 책으로 읽게 된다. 같은 책을 읽게 한 이유는 대화할 때 공통 요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른 책을 읽은 이유는 여러 자료를 보아야 현실에서 쓸 만한 문제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고, 학생들이 혹시 잘못 책을 골랐더라도 모둠의 다른 친구들이 읽는 책을 보면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두 권을 갖추게 하는 쪽이 수업 참여, 사고의 다양성 측면에서 안전하다. 인터넷 서점

에서 인권 관련 책을 찾으려면, 사회과학 분류로 들어간 다음에 사회 쟁점과 사회 문제 분류로 들어가면 된다. 가난, 소수자, 여성, 노동, 이주민, 환경, 교육, 정치, 언론, 연애, 복지, 폭력, 차별과 같은 주제를 다룰 만한 책들이 나와 있다.

역할 나누기

모둠에서 학생들의 역할은 기획, 기록1, 기록2, 편집으로 정했다. 기획은 모듬을 이끄는 역할이고, 대화 과정에서 이야깃거리를 모듬 친구들에게 모아서 정리해서 제시하는 일을 한다. 기록1, 기록2는 대화 과정을 기록하는데, 두 사람이 이 역할을 맡은 이유는 대화 기록이 힘이 드는 일이어서다. 대화를 4시간 정도 했다고 하면, 앞의 두 시간은 기록1이 맡고, 뒤의 두 시간은 기록2가 맡는 식이다. 편집은 기획, 기록1, 기록2가 쓴 보고서를 모아서 완결성이 있는 글로 내는 일을 한다. 제목을 붙이고, 소제목을 달고, 대화 기록의 문체를 일치시키고, 대화 기록에서 군더더기를 빼고 밀도 있게 대화를 압축하고 보완해서 읽을 만한 글로 만든다.

이때 역할은 기록1, 기록2, 사진, 편집으로 할 수도 있다. 학교 학생들 중에서 수행평가 과제를 하지 않고 학습 누적이 오래 지속된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 역할을 두면 좋다. 부진 학생이 사진을 찍으면서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서이다.

상당히 뛰어난 학생들끼리 모인 학교에서는, 또는 수업시간 중에 교사가 전체 학생이 모두 참여하도록 관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역할을 기록1, 기록2, 기록3, 편집으로 할 수도 있다. 3시간 동안 수업시간에 대화를 하게 하고, 한 시간마다 한 사람씩 기록을 맡아서 내게 하면 수업 중에 활동이 단단하게 진행이 된다.

대화하기

대화는 3시간 정도 수업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1시간 정도 보완할 시간을 준다. 대화 전에는 또 1시간 정도로 이야깃거리를 준비할 시간을 둔다. 개인이 먼저 이야깃거리를 만들고 대답을 쓰게 않으면, 함께 모여도 대화가 수준 낮게 되기에 사전 준비가 꼭 필요하다.

대화 준비(1시간): 각자 이야깃거리 7개 만들기, 그중에 4개 골라 답 쓰기

대화 진행(3시간): 한 사람이 한 시간씩 돌아가며 사회를 맡음

대화 기록(2시간): 점검, 정리, 보완

고쳐 쓰기(2시간): 교사가 학생 글을 보고 도움말 해줌

대화 기록은 대화하면서 손으로 써도 되고,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나중에 글로 옮겨도 된다. 또는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그 내용을 긁어다가 앞뒤에 연결하는 글을 붙여서 보고서를 만들어도 된다. 한 시간 대화한 내용을 끝이곧대로 다 글로 옮기면 에이포 10쪽이 나온다. 그래서 대화를 글로 옮길 때는 꼭 필요하지 않은 대화를 빼고 옮기라고 한다.

기록을 맡은 학생에게 워드로 입력한 한글 문서가 4~5쪽 사이로 넘지 않게 상한선을 두는 게 좋다. 편집을 맡은 학생이 쓰는 최종 보고서 역시 10쪽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야 대화 기록이 밀도 있고, 학생 부담이 너무 크지 않고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이 된다. 분량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학생이 30~40쪽을 써서 내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분량을 많이 하는 것으로 자신의 열정을 보이려 하는 학생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온 힘을 다해 필요 이상으로 힘을 들여서 과제를 하고, 너무 힘들다고 항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수준을 높이려면

나중에 학생들이 쓴 보고서를 보며, 교사와 나눈 대화가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지적 자극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학생들이 책 읽고 자기들끼리 대화해서 낸 보고서와, 교사가 살펴보고 이야기해준 뒤에 고쳐서 낸 보고서는 수준이 상당히 많이 달랐다.

학생들이 주제를 놓고 대화하는 수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없이 토론하기 : 중구난방 대화, 통념 확인, 의견 대립 해소 잘 안 됨

짧은 자료 글 읽고 이야기 나누기 : 대화 논점 있음, 통념 확인, 의견 대립 해소 잘 안 됨

책 읽고 대화하기 : 풍부한 대화, 문제 인식 잘됨, 해결 방안 부족

책 읽고 대화한 뒤에 교사와 대화하기 : 풍부한 대화, 문제 인식 잘됨, 해결 방안 조금 나아짐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결정적 변수는 미리 이야깃거리를 잘 만들게 준비시키는가, 학생들끼리 대화한 이후에 교사가 학생과 대화를 하며 보고서 고쳐쓰기 지도를 했는가에 있다. 학생들 대화를 교사가 살피지 않고 활동만 한다면, 학생들은 대화를 거치며 사회적 통념이 강화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책 대화하기를 프로젝트 수업으로 해서 한 달 정도로 길게 시간을 들여서, 깊게 하기도 한다. 이때는 시간 운영을 이렇게 한다. 한 과목에서 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두세 과목 교사가 통합 수업으로 해도 좋다.

차시	활동	설명
1-2	안내 책 정하기	모둠에서 역할 정하기(기록1, 2, 3, 편집), 사례 보기 추천도서에서 모둠 책 1권 정함. 각자 개인 책 1권 정함
3-8	책 읽기	모둠 책 읽기, 모둠 책 다 읽으면 개인 책 읽기
9	대화 준비	예시 물음에 답 쓰기, 이야기거리 준비
10-12	모둠 대화	기록1, 2, 3이 돌아가며 진행 말음 카톡 대화. 1시간 연습 후 2시간 진행
13-14	개인 보고서 쓰기	[기록]자기가 사회 말은 시간의 카톡 대화를 정리 [편집]보고서 구상
15-16	최종 보고서 쓰기	[기록]개인 보고서 고쳐쓰기 [편집]최종 보고서 쓰기
17-18	최종 보고서 고쳐쓰기	개인, 최종 보고서 고쳐 써서 제출 다른 모둠 보고서 읽고 댓글 달기

4 동아리에서 활용: 구술평가

삶의 기술을 연습시키는 구술평가는 학생의 과제 부담이 없다. 수업 이외 시간에 교사의 활동지를 살펴야 하는 부담이 없다. 수업이 끝나면 활동에 대한 평가도 끝나 있어서 좋다.

동아리에서는 인권 추천도서를 읽고 구술평가를 해보면 좋다. 교과 성적에 들어가지 않지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활동은 사람을 긴장시킨다.

동아리 수업 시간에서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그다음에 하면 된다. 구술평가에는 여러 방식이 있고, 여기서는 중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한다.

학생마다 3회 답변을 하는데, 교사가 준비한 문제를 2개 답하고, 동료 학생이 준비한 문제를 1개 답한다. 문제는 구술평가를 하기 직전에 뽑는다. 모둠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부터 왼쪽에 앉은 사람 순으로 진행한다.

자기가 뽑은 문제를 다음 순서인 사람에게 물어본다.

1차 답변은 답변자마다 1분씩 말을 한다. 4명이 돌아가며 첫 답변을 하고, 다시 한 명씩 둘째 답변을 한다. 한 사람이 한 번에 두 번 이상 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말을 오래 하게 되어 분위기가 지루해지게 된다. 답은 1분이 기준인데 최소 40초 이상 하고, 20초 초과를 허용한다.

2차 답변은 다시 첫 번째 학생이, 다음 순서 사람에게 둘째 문제를 물어본다. 돌아가면 답변한다.

3차 답변은 상호 즉석 질문과 답이다. 첫째 학생이 둘째 학생에게 즉석 질문을 하고 여기에 둘째 학생은 답한다. 그리고 둘째 학생은 셋째 학생에게 즉석 질문을 하고 셋째 학생은 답하고, 넷째 학생에게 즉석 질문을 한다. 넷째 학생은 답하고, 첫째 학생에게 즉석 질문을 한다. 학생의 즉석 질문은 교사가 제시한 질문이 아니라 그 학생이 만든 문제여야 한다. 질문을 만들면 그 과정에서 여러모로 생각이 꼼꼼하게 되기에 학생에게 문제를 내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활동	시간(분)	하는 일
문제 뽑기	1	스마트폰 스톱워치로 문제 뽑기
1차 답변	5	자기가 뽑은 문제를 왼쪽 사람에게 묻고, 답 들음
2차 답변	5	자기가 뽑은 문제를 왼쪽 사람에게 묻고, 답 들음
3차 답변	5	즉석에서 만든 문제를 왼쪽 사람에게 묻고, 답 들음
소감 나누기	4	해보니 어떤지 말함

동아리에서는 4인 모둠으로 해서 동시에 여러 모둠이 하면 된다. 성적에 들어가지 않기에 학생 들끼리 하고 나서, 서로 동료평가와 도움말과 소감을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구술평가를 할 때 살펴야 하는 점은 이 표에 담겨 있다.

구술 채점 기준	<p>▶말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의 초점에 맞게 대답하는가? - 내용을 잘 아는가? - 근거 제시가 참신하고 적절한가? <p>▶말의 전달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중을 고려해서 전달력 있게 말하는가? - 자기 언어로 말하는가? -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가?
----------	--

참고로 인권 도서를 읽고 나서 구술평가를 하려고 할 때, 적절한 질문의 사례를 소개한다. 이 질문에 답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꼭 대도록 가르쳐야 한다.

유형 1

1. 자기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하나 찾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2. 이 책에 나온 사회 문제의 현황이 어떤지 설명해주세요.
3.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책이나 영화나 뉴스나 자료에서 본 내용을 이야기해주세요.
4. 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5. 책 내용과 연관된 경험을 말해주세요. 자기 경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경험도 됩니다.
6. 해당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은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해놓았나요?
7. 연구자들의 해결 방안을 현실에 적용하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고, 남아 있을까요?
8.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의 실천 방안은 어떤 게 있나요?
9. 책을 읽은 다음에 달라진 생각을 말해주세요. 또는 공감이 안 가는 점을 말해도 됩니다.
10. 글쓴이의 생각을 대표하는 핵심 문장을 책에서 하나 찾아서 읽어주세요.

유형 2

1. 이 글을 읽고 의미 있는 질문을 하고, 왜 그 질문이 의미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2. 글에서 인상 깊은 한 문장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3. 글의 저자가 하려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그 한마디가 왜 핵심인지 설명해주세요.
4. 글과 연관된 자기 경험을 말해주세요.
5. 글과 관련된 세상일을 이야기해주세요. 여기서 세상일이란 언론, 예술, 다른 책에서 본 연관된 내용을 뜻합니다.
6. 이 글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지 말하고,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7. 글에서 자기에게 특별히 와닿는 부분을 이유와 함께 설명해주세요.
8. 글에서 자신의 의견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자기 의견과 다른 부분이 없으면, 이 책과 의견이 다른 관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9. 글에서 개인 또는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아 말해주세요.
10. 이 글이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교실에서 찾아 그 이름을 대고 이유를 말해주세요. 어떻게 그에게 이 글을 소개해야, 그가 읽을지 이야기해주세요.

여럿이 함께 인권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면, 확실히 세상이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가 하면, 바로 그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눈 자신이 좋은 쪽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보다 무엇이랄도 조금 더 나아지는 데 자신이 작은 역할이라도 할 때, 사람은 힘을 잃지 않는다.

자료 안내

- 경기도중등독서토론교육연구회,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서해문집, 2015.
- 여러 교과에서 책을 활용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사례가 나와 있다.
- 김민정, 『국어시간에 슬로리딩을 만나다』, 구름학교, 2020.
- 중학교에서 책을 활용해서 수업한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다.
- 김병섭, 김애연, 김영희, 송동철, 이민수, 최지혜, 『우리들의 랜선 독서 수업』, 서해문집, 2021.
- 원격수업에서 책 읽기 수업을 어떻게 할지 방법이 나와 있다.
- 송승훈, 『나의 책 읽기 수업』, 나무연필, 2019.
-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룬 책 읽기 수업에 대해 설명이 나와 있다.
- 하고운, 『우리들의 문학시간』, 롤리코스터, 2021.
- 문학 수업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교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 전국국어교사모임, 『함께 여는 국어교육』, 2021 겨울호.
- 사회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수업 자료를 실어놓았다.

인권 추천도서로 수업한 자료가 있는 교사들의 인터넷 공간을 소개한다.

- 구본희 서울 관악중 <https://blog.naver.com/sarambon>
- 김영희 경기 천천고 <https://blog.naver.com/hehe26>
- 김애연 경기 관양고 <https://blog.naver.com/younibang>
- 송승훈 경기 의정부광동고 <https://blog.naver.com/wintertree91>
- 이민수 서울 삼정중 <https://blog.naver.com/frindle02>
- 이한솔 서울 중앙중 <https://blog.naver.com/hssoccerking>

인권 도서를 활용한 수업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기에 좋은 검색어는 다음과 같다.

- 책 대화하기, 구술평가, 서평, 한 학기 한 권 읽기

인권을 돌아보는 영화수업

차승민* 밀양 밀주초등학교

1 우리는 타인과 사건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을까?

한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를 평가해보자. 평가는 객관적인 듯하지만 주관적이다. 절대 악인이 없듯, 절대 선인도 없다. 좋은 언행을 하면 선하게 보이고, 잘못된 언행을 하면 악하게 보인다. 한 사람을 평가하는데도 그가 가진 다양성 때문에 평가가 쉽지 않다. 사람은 한 면이 아닌 입체적인 면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 대 사람이 만나 생기는 사건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생각해보자. 앞서 사람은 한 면이 아닌 여러 면, 즉 입체적이라 하였다. 입체적인 사람이 만나 상호작용을 한다면 과연 벌어지는 상황은 몇 가지로 분기할 수 있을까? 두 사람만 만나도 4가지 이상의 상황이 발생한다. 선하고 선할 때, 선하고 악할 때 악하고 선할 때, 악하고 악할 때가 나온다. 이것은 단순한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지만 실제 현실은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얽여있고, 여인 환경 자체가 다르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동호회나, 자발적이나, 비자발적이나에 따라 사람과 환경은 다르고 그것에 따른 상호작용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사람을 제대로 안다.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자체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런 복잡다단한 사람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야 하기에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들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매듭지으며 지낸다. 과거에 성공한 경험이나 실패한 경험은 새로운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유용한 선례로 남는다. 선례는 성공을 담보하고 실패를 피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우린 이것을 선입견이라 부른다.

그러니 선입견은 옳고 그르다는 가치를 부여하기 이전에 이미 자신에게 내재한 행동 양식이라

* 차승민 선생님 『영화를 보면 아이의 숨은 마음이 보인다』(2013), 『아이의 마음을 읽는 영화』(직무연수 30시간, 행복한연수원) 개설되어 있다.

여겨도 된다.

그렇다면 선입견만 존재할까? 아니다 누구든 타인을 대하고 상황을 접하고 사건이 발생할 때 실패와 실수를 줄이기 위해 사전 정보를 얻으려 한다. 이걸 많이 얻을수록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알고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한다. 우린 이것을 정보수집이라 부르기도 하고, 이런 활동 자체를 뒷담화라 부르기도 한다. 특히 뒷담화는 정보수집과 평가가 동시에 이뤄진다.

선입견과 뒷담화는 인간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 자연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순기능이 역기능으로 전도되는 건 순식간이다. 선입견과 뒷담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따로 전술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하다.

선입견과 뒷담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선입견과 뒷담화가 개인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차별과 편견이 일상화되는 것이다. 차별과 편견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 차별과 편견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과 그들이 많이 모인 사회에서는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 자체가 편견이란 사실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인권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을 말할 때 차별과 편견은 인권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린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하는 행동을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누구나 선입견과 뒷담화를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차별과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누구나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 일상적인 말과 행동과 사건과 상황에서 인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영화 속 상황과 복화술

현실 속에서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방법을 바꿔보기를 권한다.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하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을 살짝 비껴가도록 할 때 영화가 유용하게 쓰인다.

복화술이란 원래 인형극에서 나온 말이다. 인형의 입을 움직이지만, 실제 인형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영화 속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복화술에 비취보

면 그 느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가 아닌 가상의 이야기, 가상의 이야기이긴 하나 있음직한 이야기의 주제가 차별과 편견을 담고 있다면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보다 쉽게 꺼낼 수 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행동)하는 것인가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상대나 현실의 문제에 위와 같은 질문은 단순한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의도와 상관없이 대화가 중단되거나 난항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런데 영화의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주인공은 왜 그렇게 말(행동)했을까요?”

“주인공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질문은 같다. 그러나 주어가 다르다. 주어가 다르기에 대답을 해야하는 이는 부담이 줄어든다. 적어도 자신이 부여하는 말과 행동의 의미는 자신의 것이 아닌 영화 속 주인공에 대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 발짝 살짝 돌려보자. 과연 영화 속 주인공의 말과 행동일 뿐일까? 아니다. 그 말과 행동에 관심을 보였다는 뜻은 말하는 이의 내면에도 익숙하거나 이질적이었기에 눈에 띄었다는 뜻이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말씀하셨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주인공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상상해보자.

편견에 빠진 상대도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기 쉽다. 더욱더 효과적인 것은 의외로 오류를 발견한 사람은 그 해답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저라면 주인공에게 ○○하라고 했을 거예요.”

“만약 제가 주인공이라면 ○○했을 겁니다”

상상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영화 감상 후 주고받는 대화가 복화술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영화보다 더 좋은 인권교재는 책일 수 있다. 영화는 인권의 이야기를 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는 그 속성상 텍스트의 성격이 다르다. 짝 짝 맞춰진 논리적 이야기가 아니다. 가장 감명 깊었던 영화를 떠올리고 그 영화의 클라이맥스 부분을 다시 보길 바란다. 필요하다면 대사를 옮겨보고 읽어보길 바란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토록 감동적인 부분의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만, 몽클하게 감동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책은 다르다. 영화보다 시간적 제약이 없기에 저자는 한계 없는 묘사가 가능하다. 읽기는 백차도 다 읽고 나면 인물과 사건이 입체적으로 보였던 책을 떠올려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러면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하면 되지 왜 덜 구조적이고 논리적인 영화로 한단 말인가? 여기엔 두 가지 비밀이 있다.

영화로 인권 이야기를 하면 좋은 점

첫 번째 비밀은 영화가 다소 비논리적이란 점이다.

책에 비해 비논리성이 있다는 뜻이지 전혀 없지 않다. 앞서 현실을 전술한 것을 떠올리면 좀더 쉽게 이해된다. 현실 자체는 입체적이고 입체적인 상황 하나하나를 분석하면 어마어마한 분량이 나오지만 우리 그런 현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취사선택을 한다. 이 부분을 비논리적이라 칭하는 것이다. 이런 영화의 비논리성은 오히려 매우 현실성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뭔가 비어 있는 듯한데 그 비어 있음이 받아들이기 쉬운 요소가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두 번째 비밀은 비어 있음으로 인해 채울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영화를 집중력 있게 봤다 해서 그 속에 들어 있는 인물의 모든 대사와 행동을 다 기억하기 어렵

다. 그러니 상황 인식도 관람자가 찾을 수 있는 만큼만 담는다. 수업자료로서 영화는 이런 면에서 매력적이다. 책은 영화보다 완벽하지만, 그 모든 이가 다 읽고 수업할 수 있다면 교사의 역할은 영화를 할 때보다 많지 않다. 영화는 시작과 끝이 있고 인물과 상황이 다 나오나 전개 과정 생략되거나 매몰된 부분도 나오기에 교사가 역할이 책을 수업 소재로 삼을 때 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나올 수 있다. 비어 있는 부분을 무리 없이 찾을 수 있으면 채울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영화수업 예시

별별 이야기(2009) 속 인권 이야기

장르(국가) 애니메이션, 옴니버스(한국)



상영시간 72분

공식 등급 전체 관람가

차شم 추천 등급 전 학년

핵심 주제 인권, 장애 이해, 소수자 차별

영화 엿보기

- 1편 낮잠 : 손가락과 한쪽 발이 없는 아이와 부모 이야기, 장애 이해(13분)
- 2편 동물농장 : 양들만 있는 농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염소 이야기, 소수자 편견(15분)
- 3편 그 여자의 집 : 엄마 혼자 아이 양육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12분)
- 4편 육다골대녀 : 외모 차별에 대한 아픔을 다룬 이야기(10분)
- 5편 자전거 여행 : 불법 이주 노동자의 고단한 삶을 다룬 이야기(10분)
- 6편 사람이 되어라 : 입시 위주의 교육문제를 다룬 이야기(12분)

눈여겨보기

- 낮잠 :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하는 장애인 부녀를 바라보며 무서워하는 다른 부모. 아이들보다 더 편견을 가진 어른의 모습.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심어준다.
- 동물 농장 : 빨간 염소를 구박하고 때리는 대장을 피해 양과 양이 되기 위해 양털을 뒤집어쓰며 들킬까 두려워하는 염소의 모습이 애처롭다.
- 그 여자의 집 : 남편은 집안일과 양육에 무관심하고 아내는 숨 막혀 하는 모습을 물에 빠진 것으로 비유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울하고 불안해 보인다.
- 육다골대녀 : 집안의 모든 안 좋은 외모 자질을 다 갖춘 막내는 커다란 통뺨, 큰 얼굴, 살찐 몸, 짧은 목과 다리, 거친 머리칼을 가진 그녀가 선택하는 무기는 돈, 성형, 화장, 장신구, 학력 등이 올려진 탁자다. 그러나 그녀는 무기를 보고 갈등한다.
- 자전거 여행 : 이주노동자의 삶과 애환을 자전거 여행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상적이나 왜 그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다.
- 사람이 되어라 : 좋은 대학을 가야 진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어른들의 위선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영화 이야기 나누기

- 낮잠 : 장애가 있는 아이가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부모들은 어떻게 했는가?
- 동물농장 : 대장 양은 왜 염소를 못살게 굴었는가?
- 그 여자의 집 : 집안일과 아이 기르기를 다 책임지는 아내의 마음은 어떠할까?
- 육다골대녀 : 주인공 막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기는 무엇이었나?
- 사람이 되어라 :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는 과연 어떤 것이었나?

이런 활동 어때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의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보자. 적은 내용을 발표한다.

어려운 질문보다 인상적인 장면을 찾아보는 활동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한 걸음 더

옴니버스 영화이기 때문에 수업 주제에 맞게 개별 영화를 따로 관람해도 상관없어서 동기유발 자료로 활용해 1시간의 수업으로 진행하기에 적합하다. ‘자전거 여행’은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나 경찰이 미등록이주민을 잡는 과정에 피를 흘리는 장면은 자칫 정당한 공권력 집행 자체가 나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왜 미등록이주민들이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어떤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말아톤(2005) 속 인권 이야기



장르(국가) 드라마(한국)

상영시간 115분

등장인물 초원이(주인공), 엄마, 아빠, 코치, 중원(초원이 동생)

공식 등급 전체 관람가

차츰 추천 등급 4학년 이상

핵심 주제 장애 이해, 편견 극복, 성장

영화 엿보기

초코파이와 얼룩말을 좋아하는 초원이는 자폐증이 있다. 엄마는 매우 슬퍼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초원이를 위해 헌신한다. 그러던 중 초원이가 달리기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희망을 품는다. 어느덧 성장해 20살 청년이 되었지만, 지능은 5살에 머문 초원이는 과연 마라톤 선수가 될 수 있을까?

눈여겨보기

- 초원이의 특이한 행동 :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모습(영화 초반), 초코파이와 얼룩말 좋아하기, 동생에게 존댓말 쓰기, 아무 때나 방귀 뀌고 막 춤추기, 사소한 것이라도 기억한다.
- 초원이 엄마의 모습 : 자폐증이 있는 초원이의 모습에 슬퍼하고 좌절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성. “저의 소원은 초원이보다 하루 먼저 죽는 거예요.” “20년을 벌 받으며 사는 거예요.”
- 코치의 태도 변화 : 귀찮아서 100바퀴를 뛰라고 했는데 기진맥진 그걸 다 뛰는 초원이를 보며 자폐를 이해하고 마음을 바꾼다.
- 초원이 엄마와 코치의 갈등 : 어릴 때 보다 훨씬 나아진 초원이를 바라보는 엄마와 마라톤 선수로는 부적합한 초원이를 바라보는 코치의 인식 차이. 엄마가 초원이에 대한 사랑과 집착의 경계가 모호함을 보여준다.
- 중원(초원이 동생)과 엄마와의 갈등 : 초원이에게만 관심 있는 엄마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동생 중원과 초원이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엄마가 갈등한다.
- “초원이 안 쓰러져요.” 초원이 다리상태를 스스로 말하는 초원 : 마라톤대회에 참가를 말리는 엄마와 뛰고 싶어 하는 초원이의 극적인 모습. 엄마를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려는 초원이의 행동.

영화 이야기 나누기

- 초원이의 특이한 행동은 어떤 것이 있었나?
- 초원이 엄마의 모습 중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자.
- 코치 선생님은 무엇 때문에 자폐인 초원이를 이해하게 되었는가?
- 중원이는 왜 엄마와 갈등했는가?
- 초원이는 왜 마라톤 대회에 꼭 참가하고 싶었을까?

이런 활동 어때요?

3단계 편지쓰기 활동

1단계 : 초원이 혹은 엄마가 되어 하고 싶은 말을 적는다.

2단계 : 초원이와 엄마를 바라보는 다른 가족이나 등장인물을 정해 대신 편지쓰기.

3단계 : 내가 초원이 혹은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한 걸음 더

이 영화는 2002년에 자폐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 최연소 철인 3종 완주기록을 가지고 있는 당시 19살인 배형진 군의 실화를 소재로 했다. ‘말아톤’은 심리적인 묘사와 극적 상황을 많이 묘사하고 있어 등장인물들의 감정표현이 더 많이 나온다. 초원이를 대하는 엄마의 모습은 바람직한 양육의 태도로 접근하기보다 심경의 변화에 중점을 주는 것이 좋다.

잭(Jack, 1996) 속 인권 이야기



장르(국가) 코미디, 드라마(미국)

상영시간 113분

등장인물 잭(주인공), 엄마(카렌), 아빠(브라이언), 마르케즈(선생님),

우드러프(가정교사), 루이스(잭 친구)

공식 등급 12세 관람가 차썸 추천 등급 5학년 이상

핵심 주제 자아 성찰, 성장, 배려, 편견 극복, 장애 이해

영화 엿보기

10달 만에 태어날 아이가 10주만에 태어났다. 생체시계가 남들보다 4배 빨리 돌아가는 잭. 이제 10살이 된 잭은 40대 아저씨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10세다. 남들처럼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잭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학교로 가는데 처음으로 자신이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잭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눈여겨보기

-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잭 : 학교에 가야 한다는 로렌스 선생님의 의견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살펴보자.
- 상자 안에서 놀고 있는 잭과 호들갑 떠는 잭.
- 처음 학교에 갔다 와서 적응을 잘 못 해 상자 속에서 웅크리며 말을 하지 않으려는 잭에게 엄마와 아빠는 계속해서 말을 건다.
- 농구를 통해 자신감을 찾게 된 잭은 학교에서 돌아와 호들갑을 떨며 아빠에게 전화하며 즐거워한다.
- 상자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엄마와 아빠 : 잭은 성장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 때 엄마와 아빠는 뭔가 상실감에 빠진다.
- 아이들 곁으로 다시 돌아온 잭 : 잭을 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건강 문제로 학교 가지 못하는 잭. 아이들로부터 용기 얻는 잭과 잭으로부터 용기 얻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 “난 성공했어요.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 잭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할아버지 모습이 되어 연설하는 명장면. 가슴 깊이 올라오는 감동을 느껴보자.

영화 이야기 나누기

- 잭은 왜 덩치가 큰데도 학교에 가지 못했는가?
- 잭에게 몸을 숨기는 상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잭이 처음으로 아이들과 친해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건강이 안 좋아 학교를 쉬던 잭이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난 성공했어요.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라고 잭이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활동 어때요?

- 미래의 나의 모습 상상하고 그려보기.
-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보기.
- 역할놀이 : 현재 나의 모습과 미래 나의 모습의 변화 표현하기.
 - 나는 ○○입니다. 10년이 지난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 차례대로 20년, 30년, 4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표현하면 자신의 인생을 상상해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조로증은 어린아이에게 초기 노화현상이 나타나는 희귀한 유전적 질병이지만, 영화에서 잭의 성장은 조로증과는 차이가 있고 극을 위한 설정이다. 루이스의 엄마가 잭을 유혹하는 장면은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상황을 설명해주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핵심은 루이스 엄마는 잭이 어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술집에서 어른들이 잭에게 시비를 건 이유도 잭이 어리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날아라 펭귄(2009) 속 인권 이야기



장르(국가) 드라마, 옴니버스(한국) 상영시간 110분

등장인물 승윤(에피소드 1 주인공), 엄마, 아빠, 이주훈(에피소드 2 주인공), 조미선(주훈 동료), 한창수(주훈 동료), 권 과장(에피소드 3 주인공), 권노인(에피소드 4 주인공), 할머니

공식 등급 전체 관람가 차츰 추천 등급 5학년 이상

핵심 주제 편견, 서로에 대한 이해, 가족의 소중함

영화 엿보기

- 에피소드 1. 자식 교육을 잘하려는 엄마,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아빠 그리고 힘들어하는 승윤이의 이야기.
- 에피소드 2. 채식주의자에 술 못 마시는 이주훈과 담배 피우는 조미선의 이야기.
- 에피소드 3. 두 자녀와 아내는 교육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고 홀로 한국에 남아 지내다 그토록 기다리던 가족이 모이는 날이 되었는데.
- 에피소드 4. 평생 남편 수발만 하다 퇴직한 남편을 뒤로하고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아내와 달라진 아내가 무서운 퇴직 가장의 이야기.

눈여겨보기

- “왜 못해 그 간단한 걸.” 자녀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하는 엄마 : 아이 옆에서 영어지도를 하는 엄마는 승윤이가 자신감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승윤이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승윤이는 더 위축된다. 하지만 눈치 보지 않을 땐 거북이와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한다.
- 병실에서 한창수와 이주훈의 대화 : 술을 못 마시는 이주훈의 사정을 알게 되고 바지락 이야기를 통해 고기를 먹지 않게 된 사연을 알게 된 후부터 이주훈을 이해하게 된다.
- 권 과장의 독수리, 기러기, 펭귄 아빠의 사연 : 자녀를 유학 보낸 아버지 중 경제 사정에 따라 외국으로 자주 가는 독수리, 가끔 가는 기러기, 보낸 후 한 번도 못 가는 펭귄으로 비유한다.
- “당신은 설명해 줘도 몰라.” : 오랜 유학 기간 동안 자녀는 엄마와 관계가 깊어지고 아버지와는 단절된 관계를 보여준다.
- 할머니들의 모임과 할아버지들의 모임 : 서로의 시각차를 비교해보자.

-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다툼 : 자아실현을 위해 늦은 나이에 공부하고 노력하는 할머니에 비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힘들어하지만 변화할 용기가 없고 타인을 배려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할아버지와 의 갈등이 다툼으로 변한다.

영화 이야기 나누기

- 승윤이가 공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한창수와 이주훈이 화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독수리, 기러기, 펭귄 아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왜 다투었는가?

이런 활동 어때요?

- 자유발표 : 나의 생활과 연결하여 이야기하기. 4가지의 에피소드 중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 보고 이야기해보자.
- 영화 토의 : 우리 일상에서 편견으로 인해 쉽게 하는 말은 무엇인지 찾아보자.
 - 영화에서 나오는 편견의 예를 먼저 찾는다.
 - 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하는 편견의 예를 찾는다.
 - 확장 토의 : 가족의 사이에서 오해와 편견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찾아보자.

한 걸음 더

인권에 대한 영화지만 에피소드의 진행상 성장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편견과 오해에 관한 내용이 많다. 각 에피소드의 인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이어져 있으므로 분절적으로 수업하기보다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인권 이야기,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인권에 관해 이야기를 하기는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다. 인권이란 것 자체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교사 역시도 인권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

수업에서는 차별과 편견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인권에 관해 생각하게 해보는 활동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인 인권은 나의 소중함을 먼저 인식하고 남의 소중함도 인정하는 해야 한다. 남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선 차별과 편견 없이 나와 다른 남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영화는 꽤 좋은 자료가 된다.

난 소중하다. 그러므로 남도 소중하다

내가 남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남을 존중해줘야 한다.

나와 같은 남은 없다. 그래서 나와 다른 남도 인정해줘야 한다.

차별과 편견에 관한 영화를 보고 인권에 대해 수업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우리 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벌어지고 있는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일상적인지를 보여주고 차별과 편견으로 인해 누군가 불편하고 고통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개인과 사회, 기업, 국가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로 풀어내면 된다.

이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영화 속 상황에 대해 아이가 지나치게 감정이 몰입되지 않도록 혹은 적절한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하며 우리의 현실을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필자가 제시한 4편의 영화가 인권영화의 모든 것은 아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인권과 영화로 풀어보는 인권의 이야기 혹은 수업 이야기를 해본 경험을 나눠보는 것에 의미를 둔다. 정답이 아니라 방향을 찾아가는 것. 인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차별과 편견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위에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것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는 것을 혼자가 아닌 함께 해보는 것 자체가 인권에 대한 가치를 내재화시키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세우기

배희은 (주)에듀니티

1 활동 취지

인권감수성·인권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만나는 인권 문제 안에 담겨 있는 서사와 맥락을 짚어볼 수 있는 힘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학교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접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어느 부분에서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유를 찾아 보고자 합니다. 많은 인권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변화해야 하는 이유와 교육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권교육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학교, 지역사회를 인권에 기반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인권친화적인 학교공동체 세우기」 활동*을 권장합니다.

학교의 변화는 명확한 위계질서, 업무 분담, 확실한 규정, 성과나 보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학교구성원이 학교의 가치, 목적, 교육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때 자발적 참여와 책무성이 발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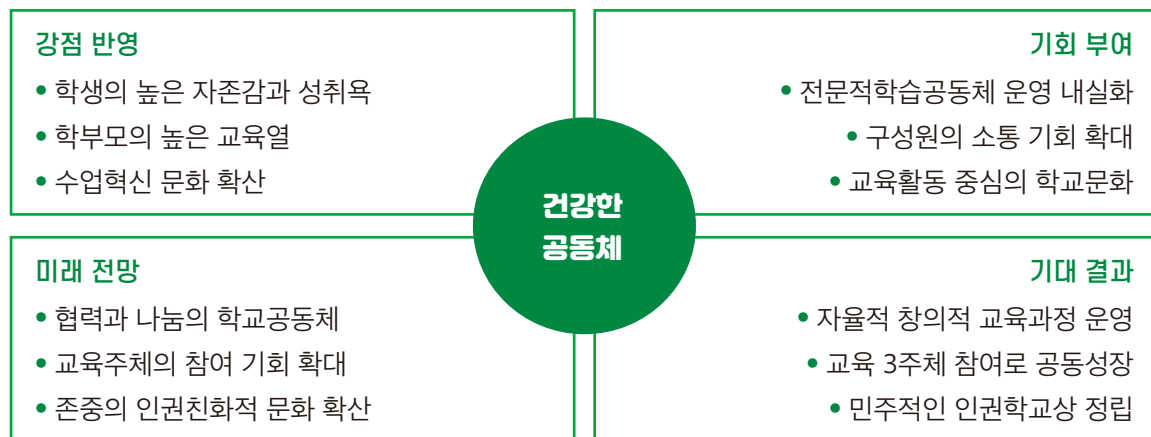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조직진단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SWOT 분석은 간편하면서도 유용한 도구입니다. 학교생활의 영역별로 장점 Strengths, 약점 Weaknesses, 기회 Opportunities, 위협 Threats 요소를 파악해 보는 것만으로도 객관적으로 학교를 돌아보게 합니다. 다음에 제시한 SWOT 분석 결과는 경기 궁내중학교의 사례입니다. (경기 궁내중학교의 인권친화학교 만들기 과정이 궁금하다면, 「학교구성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사용)」의 5강. 인권, 학교에 물들다/조성범 강의를 확인하세요.)

경기 궁내중학교에서 실시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과정은 먼저 ‘구성원 간 소통의 통로 구축’ → ‘학교 비전과 가치 공유’ → ‘학생 인권교육(교육과정 연계)과 교사 인권연수를 통한 인권감

* 본 활동은 에듀니티교육연구소가 운영하는 「학교혁신 공동체 세우기」 워크숍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원 활동의 대토론회와 전문 퍼실리테이션 과정은 간소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수성 향상' → '작은 것에서부터 내 권리 찾기' → '관행 깨기와 민주적 학교문화 확산(교직원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 → '각 위원회 교육주체의 활발한 참여 보장' → '인권친화학교로 거듭나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궁내중학교 사례에서는 비단 인권 문제뿐 아니라, 학교 전반을 돌아보며, 학교 혁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학교문화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에 정면으로 부딪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조직 진단과 개선과제는 외부전문가가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함께하는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궁내중학교의 여건(SWOT분석)>



SWOT 분석이 마무리되면, 학교 비전과 전략 세우기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학교공동체를 위한 개선방안, 행동계획을 만들어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점은 실행 의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인권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감성으로 인권 문제에 공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 준비물

분석지, 펜, 전지, 화이트보드, 전지 등

3 진행 방법

사전활동으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학교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알아보는 간편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원용 설문지를 활용하시면 우리 학교구성원이 가진 인권감수성에 대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본 활동의 진행은 교사연수 과정과 유사합니다. 학교구성원은 5~6명 정도의 팀별로 앉아서 진행합니다. 진행은 퍼실리테이션이 맡아서 진행하거나, 팀별 진행자를 별도로 선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팀별 규칙을 가볍게 정합니다. (예로, 경청한다. 발언을 독점하지 않는다. 끼어들지 않는다 등.)

① 마음 나누기(아이스브레이킹)

- 각자 간단히 자기소개 후 진행자와 서기를 정합니다.
- 마음 나누기 활동은 그림카드를 활용해 참여는 사람들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이미지 프리즘카드, 감정카드, 창의력 그림카드 등)
- 먼저, “오늘 나의 마음은?” 이 질문에 해당하는 그림카드를 고르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관해 이야기하세요.
- 다시 그림카드를 정리한 후 “당신에게 학교란?” 질문에 해당하는 그림카드를 고르고, 학교의 의미와 현재 참여자가 느끼는 학교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 이때, 참여자의 발언에 어떠한 평가나 문제 제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마음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를 여는 것에 있습니다.
- 이 활동과 유사한 활동으로 「학교구성원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교사용)」 6강. 마음열기 아이스브레이킹, 앓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앓아! 활동은 인권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역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전활동으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앓아! 활동으로 변경하여 진행하세요.

② 우리학교 인권감수성 알아보기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합니다. 이때 공유를 하기 위해 전체로 진행하기보다 팀 내에서 조사결과를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합니다. 전체 공유를 하는 것보다 팀 내 공유로 진행합니다. 결과에 대한 참여자의 개인 발언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유용합니다.

③ 학교 조직 진단(SWOT 분석)

-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조직 진단을 진행합니다.
- 전체 구성원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 1) 운영방식(가치관, 정책, 리더십 등)
 - 2) 학교구성원의 관계(학생-학생, 학생-교사, 교사-교사, 교사-학부모-지역사회 등)
 - 3) 학교교육과정(교육정책, 교육과정, 교수법 등)
 - 4) 교육환경(교실, 교무실, 운동장, 화장실, 교문 등과 같은 학교공간)
- 각 팀에서 전달받은 영역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합니다.
- SWOT 분석지는 전지를 활용하여 기록합니다.
- SWOT 분석 결과는 전체 공유로 3분간 짧게 발표하고 벽에 전시합니다.
- 사회자는 결과를 종합하여 안내합니다.

④ 비전 및 전략 세우기

- 현재 학교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비전 및 전략 세우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은 현재 상태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상태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태가 기술될수록 실천에는 용이합니다.
- 학교 비전문 만들기, 학교가 지향해야 할 인권적 핵심가치를 선정합니다(가치 예시자료 참고). 온라인 투표로 진행해도 좋습니다.
- 인권적 핵심 가치를 가지고 비전문을 작성합니다.

비전문

학교

- 비전문을 전체 공유합니다.
- 팀별로 개선방안과 행동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재 상황을 개선할 방법을 개인/공동체/국가 역할에 따라 고민해봅시다. 인권의 문제가 개인의 품성에서 그치지 않고 국가의 책임과 이를 요구해야 할 시민적 자세를 포함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 개선 방법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문장으로 만듭니다.

- 행동계획을 수행할 당사자를 함께 고민해보세요. 당사자에 따라 계획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팀별로 도출해낸 결과를 발표합니다.
- 팀별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자와 함께 결과를 종합합니다(선언문 형식이나, 행동계획을 종합하여 10가지 인권 행동강령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 이 활동은 문장을 선택하고 다듬는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였다면, 이후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술하는 것은 별도의 팀을 꾸려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⑤ 마무리 활동(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 여기에 사용할 질문은 딱 3가지입니다.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 벽에 전지를 붙이거나, 화이트보드 판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 예시를 안내해 주면 좋습니다.
 - 배운 점: 인권교육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 느낀 점: 인권교육은 마음의 습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 같다고 느꼈다.
 - 실천할 점: 앞으로 인권교육에 관심을 두고 내 수업에서 실천해 보겠다.
- 음악을 틀어주고, 각자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등을 각각 색이 다른 포스트잇에 작성하도록 합니다.
- 작성한 내용을 팀별로 돌아가면서 1분 내외 발표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발표를 못 하는 참여자가 없도록 1인당 발표시간을 적절하게 안내해주세요.
- 이후 작성한 포스트잇을 지정된 공간에 붙여서 공유합니다.
- 작은 스티커를 나눠주고, 서로의 의견에 공감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짧은 시간이라도 마무리 활동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 사항

- ① 2시간 30분~ 3시간의 운영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② 구성원마다 인권의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 ③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맡아서 운영할 경우, **운영 취지와 목적을 사전에 상의**해야 합니다. 사전활동으로 「인권감수성 실태조사」를 결과를 공유하거나, 「인권온도측정 설문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세요.
- ④ SWOT 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우리 학교 장점(잘하고 있는 것), 약점(개선할 사항) 찾기로 변경**하시고, 사전에 포커스그룹을 선정하여 해당 활동을 진행한 후 결과를 공유하면, 비전과 전략 세우기 활동에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⑤ 인권친화적 학교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이미 선포하고 공유한 학교 가치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비전, 미션, 이념, 운영원칙 등이 있는 학교의 경우 여기에 인권원칙을 제시합니다. 이미, 비전에는 인권원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기보다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법**으로 다가서기 바랍니다.

* 인권온도측정 설문지는 인권친화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질문지로,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을 바탕으로 질문이 작성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참고 <https://amnesty.or.kr/>

5 참고자료

[SWOT분석지]

학교의 4개 영역(운영방식, 학교구성원간의 관계, 학교교육과정, 교육환경)의 인권적 시각으로 살펴봅시다.

선택 영역: _____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SWOT분석지]

봉사	책임	공동체	여유	몰입
친절	감사	돌봄	배려	자유
평등	인권	격려	공감	기여
관계	수용	환경	정의	평화
생태	배움	지혜	창의성	통찰
겸손	긍정	끈기	성실	성찰
행복	자존감	정직	감동	깨달음
꿈	즐거움	건강	나눔	존중
환대	박애	인간존엄성	믿음	시민
생명	사회	권리		

[가치 예시 자료]

핵심 가치	학교 구성원이 합의한 정의

[개선방안 및 행동계획]

학교 비전:

영역	현재 상태	개선 방안	행동계획	당사자
운영방식				
학교 구성원의 관계				
학교 교육과정				
교육환경				

부록



인권교육 교수·학습
참고 자료



자료1 인권교육 자료실

분류	자료실 명	기관명	링크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교재 교육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contents/bbsContent-sList.do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국가인권위원회	https://library.humanrights.go.kr/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교육자료	서울시교육청	https://studentrights.sen.go.kr/edus/itemsList.do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의 광장/자료실	경기도교육청	https://more.goe.go.kr/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자료	전라북도교육청	https://school.jbedu.kr/human/M0106/
교육청	인권평화다문화교육/자료실	인천교육청	http://www.ice.go.kr/boardCnts/list.do?searchStr=&boardID=3142&m=030702&s=ice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인권자료실	충청남도교육청	http://www.cne.go.kr/boardCnts/list.do?boardID=20083&m=0701&s=human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 노동인권자료실	충청남도교육청	http://www.cne.go.kr/boardCnts/list.do?boardID=20492&m=0702&s=human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 센터/인권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s://human.gen.go.kr/xboard/board.php?tbnum=16
대학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자료	서울대학교	https://hrc.snu.ac.kr/
대학	성균관대학교 양성평등센터	성균관대학교	http://helper.skku.edu/
대학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중앙대학교	http://humanrights.cau.ac.kr/

자료2 인권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분류	자료명	기관명	연도	링크
용어집	인권교육 기본용어	국가인권위원회	2020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contents/bbsContentsView.do
지도안	인권 영화 교수학습 지도안	국가인권위원회	2012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contents/bbsContentsView.do
지도안	초등학교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재: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2012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contents/bbsContentsView.do
지도안	중학교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재: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국가인권위원회	2012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contents/bbsContentsView.do
지도안	고등학교용 인권교육 프로그램 교재: 사람이 곧 하늘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12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contents/bbsContentsView.do
지도안	혐오차별 예방 교안 및 교수학습 과정안(초등학생용)	국가인권위원회	2020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contents/bbsContentsView.do
지도안	혐오차별 예방 교안 및 교수학습 과정안(중학생용)	국가인권위원회	2020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contents/bbsContentsView.do
지도안	혐오차별 예방 교안 및 교수학습 과정안(고등학생용)	국가인권위원회	2020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contents/bbsContentsView.do
지도안	초등학교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지도자료	교육부	2019	https://more.goe.go.kr/null/subList/30200000963
지도안	중학교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지도자료	교육부	2019	https://more.goe.go.kr/null/subList/30200000963
지도안	고등학교 개정 교육과정 연계 인권교육 지도자료	교육부	2019	https://more.goe.go.kr/null/subList/30200000963

지도안	초등학교 개정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	교육부	2019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279&-step1=3&step2=1#none
지도안	중학교 개정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	교육부	2019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279&-step1=3&step2=1#none
지도안	고등학교 개정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교육 지도자료	교육부	2019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279&-step1=3&step2=1#none
지도안	유치원교사용 인권교육자료	서울시교육청	2021	https://studentrights.sen.go.kr/edus/itemsView.do
지도안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일반고용)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	https://studentrights.sen.go.kr/board/noticeList.do
지도안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 인권 지도자료(특성화고용)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8	https://studentrights.sen.go.kr/board/noticeList.do
지도안	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서울특별시 교육청	2019	https://studentrights.sen.go.kr/board/noticeList.do
지도안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0	https://studentrights.sen.go.kr/board/noticeList.do
지도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경기도교육청	2016	https://more.goe.go.kr/null/subList/30200000963
지도안	2019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PPT)	부산시교육청	2019	https://www.pen.go.kr/board/view.pen?boardId=BBS_0000120
지도안	유엔아동권리협약-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연계 교육자료	경기도교육청	2021	https://more.goe.go.kr/shr/subList/30200000963
지도안	학교공동체 인권교육 학습지도서	경기도교육청	2020	https://more.goe.go.kr/null/subList/30200000963
사례집	학생인권 공동 사례집 (7개 시도교육청 공동 개발)	7개 시도 교육청 공동	2021	https://studentrights.sen.go.kr/edus/itemsView.do

자료3 유관기관 및 단체*

분류	단체 명	웹페이지
국제기관	유엔인권이사회	http://www.ohchr.org
국제기구	유엔난민기구(UHCR)	https://www.unhcr.org/
국제기구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http://uncrc.org
국제기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https://ufccc.int
국제기구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https://www.unccd.int
국제기구	유니세프아동인권위원회(UNICEF)	https://www.unicef.org.uk/
국제기구	생물다양성협약	https://www.cbd.int
국제기구	청소년기후행동	https://youth4climateaction.org
정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https://www.humanrights.go.kr
정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http://edu.humanrights.go.kr
정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https://library.humanrights.go.kr
정부기관	외교부	http://www.mofa.go.kr
정부기관	국립여성사전시관	http://eherstory.mogef.go.kr/
정부기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http://www.humanrights.daumfoundation.org
정부기관	난민인권센터	http://www.nancen.org
정부기관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http://emotion.or.kr/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studentrights.sen.go.kr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기학생인권의 광장	https://edup.goe.go.kr/shr/shrMain/main.do
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센터	http://human.gen.go.kr
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http://human.jbe.go.kr
단체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https://www.amnesty.org
단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https://www.ipcc.ch
단체	미래를위한금요일(Fridays for Future)	https://fridaysforfuture.org
단체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http://www.humanpolicy.com/
단체	인권교육센터 들	http://www.hrecenter-dl.org
단체	인권교육센터 온다	http://on-da.tistory.com
단체	인권연대	http://www.hrights.or.kr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사이트 참고 <https://library.humanrights.go.kr/reference/groupDetailList/125>

단체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omen21.or.kr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단체	한국여성의전화	http://hotline.or.kr/
단체	한국여성노동자회	http://kwwnet.org/
단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http://cyber-lion.com
단체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http://seoulgenderequity.kr/
단체	푸른아시아	https://www.greenasia.kr
단체	이주와 인권연구소	http://www.mihu.re.kr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	http://www.apil.or.kr
단체	이주민과함께	http://www.omi.or.kr
단체	난민인권센터	http://www.nancen.org
단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http://www.ksli.org/
단체	서울노동권익센터	http://www.labors.or.kr/
단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http://www.workingvoice.net/xen/
단체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blog.daum.net/kwunion99
단체	청년유니온	http://youthunion.kr/
단체	권리찾기 유니온	http://www.unioncraft.kr/
단체	직장갑질 119	http://gabjil119.co.kr
단체	일과 건강	http://www.safedu.org
단체	노동건강연대	http://laborhealth.or.kr
단체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https://www.amnesty.org
단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https://www.ipcc.ch
단체	미래를위한금요일(Fridays for Future)	https://fridaysforfuture.org

자료4 인권교육 동영상·영화

분류	자료명	기관	연도	비고(링크)
동영상	학생인권 동영상콘텐츠 (서울시교육청) [총8편]	서울시 교육청	2020	https://www.youtube.com/user/GoodSenNews
동영상	학생인권 동영상콘텐츠 (서울시교육청) [총8편]	서울시 교육청	2020	https://www.youtube.com/user/GoodSenNews
동영상	혐오차별 대응 교육 자료 (서울시교육청) 1편	서울시 교육청	2020	https://youtu.be/ulv7a-9bU13w
동영상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동영상 (국가인권위원회) [총25편] (검색: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지식터 인권교육콘텐츠 결정례 영상)	국가인권 위원회	2020	http://edu.humanrights.go.kr
동영상	인권교육자료(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을 위한 동영상 자료	국가인권 위원회	2021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contents/bbsContentsList.do
동영상	지식채널e 인권관련 영상, 다시보기 메뉴>'인권'으로 검색	EBS	2021	https://home.ebs.co.kr/jisike/replayList
동영상	노동인권웹드라마_알기쉬운 알바이야기[6편]	충청남도 교육청	2021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G5Rh-Vqra68mh-yje69ZVJyiV-J3_3cXwJ
동영상	인권분야 각계 인사가 세계인권선언 낭독하는 영상	국가인권 위원회	2017	https://han.gl/oVkGC
동영상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용 애니메이션[5편]	여성가족부	2015	https://han.gl/5jcXg
영화	태일이	전체 관람가	2021	차별과 혐오, 노동
영화	나는 보리	12세 관람가	2018	차별과 혐오, 장애
영화	히든 피겨스	12세 관람가	2016	차별과 혐오, 성평등, 소수 자 차별
영화	4등	15세 관람가	2015	인권일반, 차별과 혐오
영화	미라클 벨리에	15세 관람가	2014	인권일반, 장애
영화	방가?방가!	12세 관람가	2010	차별과 혐오, 노동, 이주민
영화	그린북	12세 관람가	2015	차별과 혐오

영화	별별이야기	전체 관람가	2005	인권일반, 성평등, 장애, 이주민 등
영화	책	12세 관람가	1996	인권일반, 장애
영화	아이엠샘	12세 관람가	2001	인권일반, 장애
영화	에코플레닛	전체 관람가	2012	기후위기
영화	말아톤	15세 관람가	2015	인권일반, 차별과 혐오
영화	미안해요 리키	12세 관람가	2019	인권일반, 노동
영화	날아라 펭귄	전체 관람가	2009	인권일반, 성평등
영화	땀뽕걸즈	12세 관람가	2017	차별
영화	서프러제트	12세 관람가	2015	차별, 연대
영화	할머니는 일학년	전체 관람가	2012	인권일반
영화	어떤 시선	12세 관람가	2013	인권일반, 장애
영화	범죄소년	15세 관람가	2012	인권일반
영화	다니엘블레이크	12세 관람가	2016	인권일반, 차별
영화	모던 타임즈	전체 관람가	1936	인권일반
영화	카트	12세 관람가	2014	인권일반, 노동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	15세 관람가	2015	인권일반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	12세 관람가	2019	인권일반, 성평등
영화	여섯 개의 시선	12세 관람가	2003	인권일반
영화	세 번째 시선	12세 관람가	2006	인권일반
영화	하늘의 황금마차	12세 관람가	2014	노동
영화	시선사이	12세 관람가	2016	인권일반

자료5 인권교육 참고도서

분류	책 제목	저자	출판사	연도
인권일반	연대하는 인간 호모 솔리다리우스	강수택	지식의날개	2019
인권일반	사람, 장소, 환대	김현경	문학과지성사	2015
인권일반	타인에 대한 연민	마사누스 바움	RHK	2020
인권일반	그들도 나처럼 소중하다	박경서	북로그컴퍼니	2012
인권일반	나의 가해자들에게	씨리얼	RHK	2019
인권일반	트라이앵글의 심리학	이보경	양철북	2018
인권일반	인권 수업	이은진	지식프레임	2018
인권일반	희생양과 호모 사케르	이종원	계명대학교출 판부	2019
인권일반	환대에 대하여	자크 데리다	동문선	2004
인권일반	호모 사케르	조르조아 감벤	새물결	2008
인권일반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구정화	해냄	2015
인권일반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돌베개	2021
인권일반	소년이 온다	한강	창비	2014
인권일반	사당동 더하기 25	조은	또하나의문화	2012
인권일반	있지만 없는 아이들	은유	창비	2021
인권일반	트라이앵글의 심리	이보경	양철북	2018
인권일반	평화,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	정주진	디자인	2021
인권일반	평화는 처음이라	이용석	빨간소금	2021
인권일반	세계는 왜 싸우는가	김영미	김영사	2019
인권일반	조효제 교수의 인권오딧세이	조효제	교양인	2015
인권일반	인권을 외치다	류은숙	푸른숲	2009
인권일반	명견만리	KBS명견만리	인플루엔셜	2016
인권일반	불편해도 괜찮아	김두식	창비	2010
인권일반	사람, 장소, 환대	김현경	문학과 지성사	2015
인권일반	세계인권선언	이부록그림, 조효제움김	프롬나드	2012
인권일반	학교에 사람꽃이 피었습니다	김현진	에듀니티	2019

인권일반	같이 읽자, 교육법!	정성식	에듀니티	2021
인권일반	학교자치를 말하다	소중한학교 자치실천연 구회, 백원석	에듀니티	2021
인권일반	보평중학교공동체	보평중학교 공동체	에듀니티	2020
인권일반	초등자치	이영근	에듀니티	2021
인권일반	학교 내부자들	박순걸	에듀니티	2018
인권일반	학생자치를 말하다	이민영, 백원 석, 조성현	에듀니티	2017
인권일반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의 위상과 역할	(사)인권정책 연구소	(사)인권정책연 구소	2020
인권일반	인권 세미나	김형완	한티재	2021
인권일반	사회복지와 인권	김수정 외	학지사	2021
인권일반	조슈아 트리	장미	서유재	2020
성평등	왕진 가방 속의 페미니즘	추혜인	심플라이프	2020
성평등	당신의 연애는 안전한가요	연아	미디어일다	2021
성평등	페미니스트 라이프스타일	김현미	반비	2021
성평등	헤어지자고 했을 뿐입니다	이주연·이 정환	오마이북	2021
성평등	대한민국에서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는 법	배상훈	스노우폭스북스	2018
성평등	나의 첫 젠더 수업	김고연주	창비	2017
성평등	성평등 -성 고정 관념을 왜 깨야 할까?	손희정	풀빛	2018
성평등	저는 남자고, 페미니스트입니다	최승범	생각의 힘	2018
성평등	예민함을 가르칩니다	초등젠더교 육연구회	서해문집	2018
성평등	십 대를 위한 동화 속 젠더 이야기	정수임	팜파스	2019
성평등	소녀X몸 교과서	윤정원, 김 민지	우리학교	2021
노동	중간착취의 지옥도	박보라 외	글항아리	2021
노동	배달의민족은배달하지 않는다	박정훈	빨간소금	2020
노동	송곳 1-6	최규석	창비	2017
노동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김종인	박영사	2017
노동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강동묵 외	나름박스	2017

노동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	유범상	학교도서관저널	2018
노동	우리가 몰랐던 노동 이야기	하종강	나무야	2018
노동	날아라 노동	은수미	도서출판 부키	2012
노동	임계장 이야기	조정진	후마니타스	2020
노동	열여덟, 일터로 나가다	허환주	후마니타스	2019
노동	인간의 조건	한승태	시대의창	2013
노동	숨은 노동 찾기	송기역	오월의봄	2018
여성	며느리 사표	영주	사이행성	2018
차별과 혐오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창비	2019
차별과 혐오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창비	2019
차별과 혐오	말이 칼이 될때	홍성수	어크로스	2018
차별과 혐오	혐오사회	카를린 엠케	다산초당	2017
차별과 혐오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	박민영	북트리거	2020
차별과 혐오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2017
차별과 혐오	이상한 정상가족	김희경	동아시아	2017
차별과 혐오	아픈 몸 더 아픈 차별	김민아	뜨인돌	2016
기후위기	파란하늘 빨간지구	조천호	동아시아	2019
기후위기	쓰레기 거절하기	산드라 크라 우트바슐	양철북	2020
기후위기	클라이브 폰팅의 녹색세계사	클라이브 폰팅	민음사	2020
기후위기	고릴라는 휴대폰을 미워해	박경화	북센스	2011
기후위기	탄소 사회의 종말	조효제	21세기북스	2020
기후위기	2050 거주불능 지구어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추수밭	2021
이주민	아프리카인, 신실한 기독교인, 채식주의 의자, 맨유 열혈 팬, 그리고 난민	오마타 나오 히코	원더박스	2020
이주민	난민, 멈추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하영식	뜨인돌	2021
이주민	후 아 유	이향규	창비	2018
이주민	우리 곁의 난민	문경란	서울연구원	2017
이주민	세상을 바꾼 이슬람	이희수	다른	2015
장애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	박찬선, 장 세희	이담북스	2018

자료5 인권교육 참고 그림책

주제	제목	작가	출판사	연도
인권일반	숨바꼭질	김정선	사계절	2018
인권일반	달려!	다비드 칼리 글,마우리치오 A. C. 콰렐로 그림	책빛	2017
인권일반	앵그리맨	그로 달레 글, 스베인 뉘후스 그림	내인생의책	2014
인권일반	전쟁	조제 조르즈 레트리아 글, 안드레 레트리아 그림	그림책공작소	2019
인권일반	아모스와 보리스	윌리엄 스타이그 글·그림	시공주니어	1996
인권일반	뒷집 준범이	이혜란	보림	2011
인권일반	천사들의 행진	강무홍 글, 최혜영 그림	양철북	2008
인권일반	브레히트의 어린이 십자군	베르톨트 브레히트 글, 카르멘 솔레 벤드럴 그림	새터	2012
인권일반	곰인형 오토	토미 웅거러 지음	비룡소	2001
인권일반	안나가 처음 바다에 가는 날	미셸 로시 글, 라비고타 그림	우리학교	2019
인권일반	DOTS-점	지안카를로 마크리 글, 카롤리나 자노티 그림	내인생의그 림책	2018
인권일반	긴 여행	프란체스카 산나 지음	풀빛	2017
인권일반	벌집이 너무 좁아	안드레스 피 안드레우 글, 킴 아마테 그림	고래이야기	2015
인권일반	제노비아(만화)	모르텐 뒤르 글, 라스 호네만 그림	지양어린이	2018
인권일반	거짓말 같은 이야기	강경수	시공주니어	2011
인권일반	남쪽의 초원 순난앵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마리트 턴크비스 그림	마루벌	2006
이주민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유타 바우어 지음	북극곰	2012
이주민	이사벨의 방	사라 스튜어트 글, 데이비드 스몰 그림,	시공주니어	2013
이주민	매미	손 탠 지음	풀빛	2019
이주민	다름	박규빈	다림	2017
이주민	내 이름은 난민이 아니야	케이트 밀러	보물창고	2018

장애	입 없는 아이	박밤 지음	이집트	2020
장애	귀 없는 그래요	스테판 세르방 글, 시모네 레아 그림	한울림스페셜	2018
장애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	박현경 글, 이진희 그림	해와나무	2016
장애	바람은 보이지 않아	얀 에르보 지음	한울림어린이	2015
장애	벽 속에 사는 아이	아네스 드 레스트라드 글, 세바스티앙 슈브레 그림	작가정신	2019
장애	담을 넘은 아이	김정민 글, 이영환 그림	비룡소	2019
장애	아주 특별한 우리 형	고정욱 글, 김효은 그림	대교북스주 니어	2018
장애	너는 특별하단다	맥스 루케이도 글, 세르지오 마르티네즈 그림	고슴도치	2002
차별과 혐오	두 마리 당장 빠져	신디 더비	천개의바람	2021
차별과 혐오	저리 가, 알프레드!	카트린 피네흐	북극곰	2020
차별과 혐오	1964년 여름	데버러 와일즈 글, 제롬 리가히그 그림	느림보	2006
차별과 혐오	초코곰과 젤리곰	얀 케비 지음	한솔수북	2015
차별과 혐오	밀어내라	이상욱 글, 조원희 그림	한솔수북	2019
차별과 혐오	집을 잃어버린 아이	안네게르트 폭스후버 지음	푸른숲 주니어	2017
성평등	나의 다정한 돼지 엄마	크리스틴 나우만 빌맹 글, 마리안 바르실롱 그림	그레이트	2018
성평등	봉지공주와 봉투왕자	이영경	사계절	2018
성평등	뜨개질하는 소년	그레이트 팜랜즈 글, 마가렛 체임벌린 그림	책과콩나무	2015
성평등	흔해빠진 이야기는 싫어	다비드 칼리 글, 안나 아파리시오 카탈라 그림	봄별	2021
성평등	종이 봉지 공주	로버트 먼치 글, 마이클 마르첸코 그림	비룡소	2004
성평등	루비의 소원	시린 임 브리지스 글, 소피 블랙울 그림	비룡소	2004
성평등	해방자 신데렐라	리베카 솔닛 글, 아서 래컴 그림	반비	2021
성평등	나, 화가가 되고 싶어!	윤여림 글, 정현지 그림	웅진주니어	2008
성평등	돼지책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2001

기후위기	모든 것이 사라진 그날	니콜라 데이비스 글, 레베카 콕 그림	우리동네책 공장	2019
기후위기	09:47	이기훈	글로연	2021
기후위기	사라지는 섬 투발루	바루	북스토리아이	2012
기후위기	빙하가 사라진 내일	로지 이브	한울림어린이	2018
기후위기	마지막 섬	이지현	창비	2021
기후위기	누가 숲을 사라지게 했을까?	임선아	와이즈만북스	2013
기후위기	그레타 툰베리, 세상을 바꾸다	가브리엘라 친퀘 글, 바밀 그림	보물창고	2021
기후위기	기후 변화가 내 탓이라고?	앨리스 하먼 글, 안드레스 로자나 그림	그레이트	2021
기후위기	나무를 심는 사람	장 지오노 글, 프레데릭 백 그림	두레아이들	2002
기후위기	북극곰에게 냉장고를 보내야겠어	김현태 글, 이범 그림	휴먼어린이	2011
기후위기	우리는 모두 그레타	발렌티나 잔넬라 글, 마누엘라 마라찌 그림	생각의힘	2019
노동	오, 미자	박숲	노란상상	2019
노동	우리 엄마는 청소 노동자예요	다이애나 콘 글, 프란시스코 델가도 그림	고래이야기	2014
노동	찬다 삼촌	윤재인 글, 오승민 그림	느림보	2012
노동	페페 가로등을 켜는 아이	일라이자 바톤 글, 테드 르윈 그림	열인어린이	2005
노동	우리 아빠는 행복한 노동자예요	유혜진 글, 이유나 그림	책읽는달	2019
노동	우리 아빠는 택배맨	양지안 글, 김선배 그림	낮은산	2016
노동	나는 꼭 의사가 될 거예요!	정글짐북스	마조리 프라 이스먼	2015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구자 및 집필진

본 프로그램은 2021년 5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협력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탁 연구 용역」의 결과물입니다. 프로그램 기획·자문에는 (사)인권정책연구소가 참여하였으며, (주)에듀니티가 수행사로서 연구 개발을 총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집필·자문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책임	김병주	(주)에듀니티
기획·자문	(사)인권정책연구소	
연구 총괄	이기택	(주)에듀니티
시스템 개발 총괄	백헌탁	(주)에듀니티랩
출판 총괄	임종훈	(주)에듀니티
교수설계	배희은	(주)에듀니티
	박세원	(주)에듀니티
편집 주간	이하영	(주)에듀니티랩
편집	최진영	(주)에듀니티
디자인	정다운	(주)에듀니티
시스템 개발	김태선	(주)에듀니티랩
콘텐츠 개발	반성현	(주)에듀니티
연수 운영	조지연	에듀니티교육연구소
주요 집필진	김형완	(사)인권정책연구소
	김은희	(사)인권정책연구소
	김지우	(사)인권정책연구소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이명희	(사)인권정책연구소
	최성윤	(사)인권정책연구소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양혜우	비교문화연구소
	오기출	(사)푸른아시아

자문·수업 설계

김민태	(전)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전윤경	한국교원대학교 강사
조성범	경기 공내중학교
정성식	이리고현초등학교
이태숙	서울덕수초등학교
송승훈	의정부광동고등학교
차승민	밀양 밀주초등학교
김나영	국제아동인권센터
이동규	횡성 서원초등학교
황경재	횡성 성남초등학교
박미경	삼척 가곡중학교
김영복	평창 진부고등학교

이외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34명의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가 프로그램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셨습니다.

학 교 공 동 체 를 위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용

